朝鮮日報
夕刊
四日(土)
本紙朝夕刊二十二面
本社特定刊行物 月刊『朝光』『女性』『少年』

開封攻略戰迫到

南北兩軍挾攻으로

敵二十萬開封에制壓

【徐州四日發同盟】我○○部隊는 三日夕刻 開封南方百里되는 敵의據點○○을 完全히 占領하고 ○○部隊도 拓城을 攻略中인바 一方隴海線北方으로부터 進擊할 ○○部隊도 本格的梅雨期로因하야 무릅까지빠지는 泥土의 惡路를무릅쓰고 猛進하는中이어서 開封攻略戰은 마츰내 目前에 切迫되엿다

【北京四日發同盟】陳留口、三儀寨等隴海線北側의 要點을 占據하고 二十餘萬의 敵大軍과 對峙、逆襲의敵部隊에게猛攻擊을加하야 戰果를擴大하고잇든 我○○部隊는當面의敵에向하야 一齊히進擊을開始、西方及 南方으로向하야 顯著히進擊을 敢行한바 敵第一線은 一齊히 崩壞하기始作하야 三日未明으로부터 敵第一線은 續續退却을 開始하엿다 一方歸德、寧陵을攻略 南北으로 서로 呼應하야 西進中의兩部隊는 三日에며破竹의勢로써 開封南方○○의要地로進出한바 潰走中의敵大軍은 漸次崩壞하려한다 여가티 南北어서로 呼應하는 我軍의 刮目할 進擊에依하야 敵二十萬의 兵力은 開封附近의 狹少한 地域에 包圍되려하고 開封攻略戰은 마츰내 一兩日中으로 絕頂에 達하게되엿다 我軍의 士氣는 極히 旺盛하야 어며 開封을 陷落한 氣槪를 보이고잇는바 攻略도 時間問題로觀測된다

事變目的達成次

五相會議開催論有力化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宇垣外相 荒木文相 池田藏相兼商相의 更迭에 뒤니어 板垣陸相의 新任으로 玆에 不動의陣容을 整備하게 되엿스므로 徐州戰後의 新段階에 對應할 軍事、外交、經濟 萬端方針에關하야 檢討를 進捗시켜 어디까지 將介石政權打倒、中北支兩政權育成에 邁進하고저 諸般準備를 進行하고잇는데 最近 閣內에 上述目的達成을 爲하야 近衛首相을 始하야 宇垣外相 板垣陸相 米內海相 池田藏相兼商相의 五相會議를 開催할것이라는 論이有力化하야 其推移는 자못 注目되게되엿다

蘭封附近戰況

【北京四日發同盟】四日午前十時軍司令部發表=五月下旬以來○○部隊는蘭封附近에서 約二十個師의優勢한敵과對戰하야 敵에게多大한 損害를興하엿다 六月二日午前十時一齊히 當面의 敵에攻擊을開始하야 西正面의 第一線部隊는 馬庄、孟庄、小寺廟를 連結한線에 그리고 別動隊는 祭庄、苑寨庄、張樓、李庄線에到達하엿다 敵은頑强히 抵抗하엿스나 我猛攻에견듸지못하야 三日朝來退却을 開始하고 我軍에서 敵의 遺棄한死體는五千、鹵獲又는破壞된敵重裝甲車類는二十、鹵獲된 機關銃十、小銃五千、野砲五、小銃彈九萬一千百、機關車二、貨車七十一其他多數이다

能率向上을爲해 農林省勤勞運動

【東京電話同盟】國民精神總動員의 路線에 沿하야 農林省經濟更生部의 小壯官吏가『靑年勤勞促進會』를 組織하고 事務能率增進의 尖兵이되여 如何히만흔 應召者를 내이더라도 省內事務에 支障을 招來치안케하는 同時에 餘暇를 利用하야 勤勞奉仕、身命을 堵하야 銃後에 備하고 奉公하기로 盟誓하야 名稱을 靑年勤勞聯盟이라고 부르고 漸次各省各團體 各道府縣各學校에도 慫慂하야 勤勞奉仕의 猛運動을 行하기로되엿다

貴族院議員團 六日에來京

貴族院議員 滿鮮視察團은 來六日午後一時三十五分 京城驛着入京 朝鮮호텔에서一泊 七日午後三時五十分發 北朝鮮經由로 滿洲로向할터인데 一行은 左의 諸氏이다

用村錄太郎伯 有地藤三郎男 保科正昭子 河井彌八氏 前田勇男 關田武彥男(事務官) 高山福一氏

曉事解說 板垣新陸相

近衛首相이 徐州大攻擊戰의 終末을 契機로 對支事變處理를 强行키爲하야 마츰내 手腕한 工作인 內閣改造를 斷行하야 宇垣、荒木、池田等三巨頭를 入閣케하는同時에 一部에서 [illegible]하든바와가티 陸相에는 現軍部內에서 가장名望이 노픈 板垣中將을 [illegible]키로決定하고 [illegible] 東條新[illegible] [illegible] 板垣中將이 事變勃發[illegible] 北支에出動中이엇 [illegible] 延되엿든것이 事實이다。

◇

板垣氏는 이미二年前林銑十郎大將의 [illegible] 陸相의 最有力候補이엇스나 [illegible] 多岐한 當時의局面事情으로 不得已 入閣치못하고말엇든 것인바 今日의 時局의 [illegible] 마츰내 入閣에 [illegible]하고말엇다 陸軍部內에 잇서서의 板垣氏의 存在가 前面에 나타나게된 것은 멀리 滿洲事變때부터이며 그가야지 大佐로서 [illegible] 滿洲[illegible] 一翼의 大事業에 參劃하야 [illegible]의 活動과 [illegible] 作戰으로 [illegible] 今日과가튼 滿洲國을 [illegible] 不滅의 偉勳을세운 一世의[illegible] 되자부터「陸軍에는 板垣이 가잇다」는 認識을 걸게하엿든것이다。

◇

大膽[illegible]에 [illegible]한 그의功績을 더듬어보면 그는 [illegible] 實踐躬行의 人物임을 [illegible]

이것이 그를 陸軍의定石的人事에 拘泥하지안코 非常時陸相의重任에 拔擢케된 所以어니와 理論과觀念보다도 實行이 緊切하게 要求되는 今日에잇서서 [illegible] 偉大한 [illegible] 板垣陸相이 明敏精緻한 東條新次官과함께 現在直面하여잇는 對支作戰과 事變處理를 中心으로한 國內政治에 잇서서 今後果然 如何한程度의 推進的役割을 遂行할것인가 吾人의 注目은 오로지 여에集中된다。

○○部隊西進繼續

柘城에日章旗飜揚

【亳縣四日發同盟】○○部隊는連日豪雨때문에 泥濘化한 惡路를 무릅쓰고 西進을 繼續하야 三日午後五時亳縣西方十二里柘城을 攻略 城頭에노피日章旗를 날리엇다

總裁決定問題 執行機關에移牒

【東京電話同盟】總裁決定에關한 政友會의 代行委員會는 이미四回를거듭하야 鳩山對反鳩山派의 紛糾를 增大할뿐으로 조금도 進捗되지안흠으로 三日의 第四次 代行委員會에서는 砂田幹事長으로부터 代行委員에 對하야 時局이重大하여 政黨의活躍이 要求되는때 總裁問題로 쓸데업는 紛糾를 거듭하는것은 黨을 不安케할뿐만아니라 何等의 엇는바가업다 總裁決定은 他의 執行機關으로 옴기는것이 如何하냐고 提議하엿다 이에對하야 鳩山代行委員은 全幅의 贊意를 表하야 自己는 公選論을 主張하므로 이에 同意하나 代行委員會를 열어도 結局 一致될可望이업스므로 此際總裁決定을 執行機關으로 옴기는것이어떠냐고 述하엿다 本問題에 關하야 解決의 關鍵을 掌握하려다 失敗한 島田代行委員은 무슨까닭인지 一日의考慮를要求하엿스므로 結局四日正午부터 第五次代行委員會를 開하기로 되엿는대 鳩山代行委員은 同夜別項과 如한 聲明을 發表하여 그所信을 天下에 闡明하야 一步도 讓步치안흐려는 決意를明白히하엿스므로 四日의第五次代行委員會까지考慮를要求한 島田代行委員이 如何한對策을 提示할는지 豫斷치안흐나 結局鳩山氏의 主張대로總裁決定을 黨執行機關으로옴기고 代行委員會를 中止하게 되리라는 觀測이有力하다 이 境遇 鳩山、中島兩派는 正面衝突이되여 即時黨分裂의 危機에 直面하든지 或은鳩山氏의 主張대로 公選을行하든지의 두길밧게업스나 公選을行하다하면 我國政黨史上最初의일이오 設令公選에依하야 次期總裁가 決定된대도 黨情은이를機會로 一層紛糾하야 重大危局에直面하게될것이다

新舊陸相事務引繼

【東京電話同盟】板垣新陸相은四日午前八時陸軍省에初登廳 同三十分 第一會議室에서 局課長以下全職員을 參集케하고먼저 杉山前陸相으로부터 惜別人事를하고 新陸相으로부터 訓示를行한다음同 九時陸相官邸에서 事務引繼를 終了하엿다

板垣中將 西尾總監과會見

【東京電話同盟】板垣中將은三日午前 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 伺候하야 參謀本部에서 西尾教育總監과 會見하고 歸還의 人事를하엿다

廣東空爆에關하야

英國日本에抗議

【倫敦三日發同盟】外務當局 英國首相은 三日下院에서 英國政府는 廣東空爆에對하야 日本政府에抗議하기로決定한 旨를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英國政府는 日本軍이 廣東을 空爆할때 市民의居住地域 特히 人口가가장 密集되여엿는 地帶에 無差別的으로 爆擊을 加한데對하야 日本政府에抗議하기로되여 駐日크레기大使에게 至急抗議하도록 訓令하엿다 情報에依하면 空爆目標의 如何를不問하고 爆彈이落下된 區域은 軍事的으로 重要性이 잇다고는 到底히생각할수업다 五月二十八日二十九日三十日의 空爆의結果 死者百五十 負傷一千을 내엿다 右空爆의結果 英國軍艦으로 廣東을 撤去한 避難者는업고 또英國人이 負傷하엿다는 報道는 特別히 接하지안헛다

다음에 勞働黨[illegible]議員은 日本政府에 共同抗議를行하기 爲하야 英政府는 九個國條約 締約各國政府에 慫慂할이如何하냐고 提言하엿는데 [illegible]首相은 이를否定하고 共同提議라는 手段이 果然有効할지 疑心이라고 答辯하엿다

空爆에關해

米政府態度聲明

【華盛頓三日發同盟】國務次官웰스氏는 三日루스벨트大統領을 訪問하고 協議한結果 空爆問題에關하야 米國政府의態度에對하야 新聞記者團에게 左와如히 政府의聲明을 發表하엿다

米國政府는 他國間의 紛爭에 對하야 嚴正不干涉政策을 確守하나 近代文明의 主要部分으로서 發展한 人道的行爲의 諸準中 가장基本的인 諸原則을 侵犯함과가튼 方法과 및 行爲에對하야는 米國國民은 强硬히 非難의意를 表明치안흘수업다는 旨를 거듭聲明한다

그리고 웰스次官은 本聲明은 英國政府와는 何等의 連絡이잇는것이 아니고 또 西班牙프랑코政權、日本政府에對하야 通達하는것이아닌 旨를 言明하엿다

鳩山代行委員 松野、砂田兩氏와協議

【東京電話同盟】政友會總裁問題에 關하야 鳩山一郎氏는 三日午後三時부터 黨本部에서 野松鶴平、砂田重政兩氏와 會見、代行委員會를 中止하려는 鳩山氏의 意見을 中心으로 善後處置打合을 하엿스나 內部情勢에 關하야 協議하엿다

國府駐日大使館

閉鎖키로決定?

來十日에發表할豫定

【上海三日發同盟】漢口에서오는 報道하야 傳하는바에依하면 國民政府外交當局은 來六月十日을 期하야 日支外交關係에關한 重要發表를行할터인데 其內容에關하여는 嚴秘에附하며 駐日大使館의閉鎖라고 傳한다 駐日支那大使館은 許世英大使가 撤歸한後라도 依然히 國府外交機關으로 存置閉鎖되지안코 今日에至한것인데 今回突然右와如한 措置를取하게된것은 多大한注目을 惹起하고잇다

本社參觀

▲私立白元普通小學校生徒八十名 引率者 洪國瑞氏
▲舍人公立尋常小學校生徒七十二名 引率者 協蓮氏 李應龍氏
▲奉天北市場普通學校生徒七十名 引率者 朴英錫氏

人面錄

米下院『타』議員氏、海軍軍縮會議招請案을提出。
◇
十一億弗海軍擴張通過도 억그제、大統領『와인』잉크도 아물려것다!。
◇
「엉클、샘」氏의 癖疾인 間歇的 잠고대。
◇
四萬五千噸 大戰艦에 노러앉을 英國『마ー스』는 悠然 微笑。
◇
在東京中國大使館을 國民政府서 閉鎖說。
◇
支那大使館이 至今까지 엇섯든가?
◇
絶緣성화맛든 絶勝金剛山을 어번은 合法的으로 掘鑿。
◇
人物이 조커든 財貨가업거나 財貨가 饒富커든 人物이 醜커나 五福具全도 어렵대는說。

秩父宮殿下께서

江南戰跡을御視察

【上海同盟】秩父宮殿下께서는復興色이 濃厚한 上海、南京、杭州로부터 砲煙냄새가 사라지지안흔 蕪湖、蚌埠의 第一線을親히 御視察하시기爲하사 五月四日 福岡發 飛行機로 御附武官小池中佐、山口少佐를 거나리시고 同日午後六時 上海○○에御到着、殿下께서는 爾來 七日間 御煩悚하시게도 모든御不自由를 돌보시지 안흐시고 江南江北各地皇軍將兵 奮戰의 跡을 親히御視察하시엿다 金枝玉葉의 御身으로 或은 急造의 御召列車로 或은 飛行機로 親히 皇軍將兵의 勞苦를 맛보시는 殿下의御英姿를 拜하고 全將兵은 모두 感激할뿐이엿다

上海○○에 御着陸하신 殿下께서는 即時 自動車로 吳淞鎭에 御向하시사 夕暗에 덥힌黃浦江畔最初의 敵前上陸의跡에서 크리크와 交通壕에 包圍된一帶의 여러가지 激戰跡等을 御感慨깁게 御一巡 幾多의護國英靈을 慰하시고 御宿舍○○에 入御하시엿다 同候에 參上한 在上海陸海軍將星의 御奉伺를 受하신後 臨時御宿舍에서 第一夜를 밝키신 殿下께서는 五日午前十時 軍司令部에 台臨 畑最高指揮官으로부터 全般情勢를 親히 聽取하신後 ○○參謀長의 御先導로 上海市政府及 大場鎭附近의 戰跡을 御視察 正午○○部隊에서 ○○部隊長과함께 御晝餐을드시고 午後는 支那方面艦隊及 陸戰隊本部에 臨御하시사 各官下의 情勢를 御聽取하신다음 租界守護와 世界戰史에 빗나는 幾多의 壯烈한記錄을남긴 陸戰隊戰跡을 御視察하시엿다

六日午前에는 軍特務部關係의軍務를 御聽取하신後 上海自然科學研究所及 東亞同文書院에 臨御하시사 兩學園復興의 狀況을 詳細御聽取하시고 上海의 御視察을 一旦終了하신 殿下께서는 七日午前九時 御質素하신 御召列車에 召하시고 上海驛御發 車中 中井上海驛長이 御說明하여드리는 中支占領地域의 鐵道復舊 輸送狀況等에 對하사 御聽取하시면서 海寧線으로 南京에 向御하시엿다 殿下께서는 九日杭州附近의 戰跡을 御視察하신後 正午飛行機로 上海御歸着 即時南市附近의 戰場을 御視察하신後 南市碼頭에서 軍艦으로 黃浦江을 溯江하시사 艦上에서 兩岸의 戰跡을 御視察、櫻井部隊를 御視察하신 後 上海의 御宿舍에 御歸還、十日 午前八時三十分○○基地에서 飛行機로 北支에 向하시엿다

防空濠內御視察

【南京同盟】秩父宮殿下께서는特別列車로 七日午後五時(日本時間)南京에 御安着하시사 畑最高指揮官을 爲始하야 各部隊長、軍側幕僚、近藤○○艦隊司令官以下海軍側幕僚、花輪總領事以下館員多數 下關驛에 御出迎、颯爽하신御英姿를 프라트폼에 降立하신殿下께서는 御附武官山口小佐等을 거나리시고 同驛으로부터 一路○○에臨御하시사 畑最高指揮官으로부터 軍情에對하야 詳細 聽取하시고 御小憩하신後 南京攻略의 最激戰地中華門에 向하시사 約一時間 皇軍勇士奮戰의 跡을 御感慨깁흐시게 御視察하시고 ○○部隊參謀 栗栖中佐로부터 當時戰況에關한 御說明을 御聽取하신다음 御宿舍總領事館에 入御하시사 同夜는 官邸에서 御一泊하시엿다 翌八日에는 簡素한御朝食後 九時御宿舍를出御하시사 伊藤總領事의 御案內로 北極閣附近의 防空壕를 御視察하신다음 十時廿分雨花臺에 臨하시사 ○○部隊의 岡田少佐로부터 中華門突破의戰況을 詳細御說明하여드리매 殿下께서는 當時의激戰에 御感慨기프신것으로 拜察하엿다 다음에 兵站病院에 臨御하서서 白衣勇士들에 對하와『傷處는 아프냐』『이쇼오산하일수잇는가』 一一御鄭重하신 御慰問의말슴을賜하사 病床에잇는 將兵은殿下의 感激하온말슴을 拜하고 모두오직感泣하엿다

여기서殿下께서는 兵站病院으로부터○○에向하서서는 御沿道、南京市街의 刮目할 更生狀態와 邦人의 進出狀態에 자못 御滿足하시게 御視察하시면서 午前十一時十分○○으로부터 飛行機에 御搭乘하사 蚌埠로 向하시다가 午後三時再次 飛行機로 同地를 出發 四時蕪湖에 御到着하시다 ○○部隊長이 地圖를 펴고 戰況을 逐一御說明言上한즉 殿下께서는 매우 御熱心히 御聽取하신後 여러가지 御下問을 賜하시고 御少憩의 御餘暇조차업스신 四時廿分에는 再次機上의 人이되시사 一路杭州로 向하시엿다

杭州御視察

秩父宮殿下께서는 八日午後五時半 筧橋飛行場에 御着、出迎한 ○○部隊長幕僚 各部隊長에게 親히御目禮를 賜하시고 宿舍杭州領事館으로 드러가시어 ○○部隊長의 敗敵掃蕩及警備에 關한 狀況說明을 御聽取하시엇다 殿下께서는 陸軍傷病兵에게對하사 感激의말슴을 賜하사 將兵一同은 感泣하엿다 翌九日午前九時半宿舍를 御出發하사 岳王廟、靈隱寺及事變前支那軍이 準備한 恒久的防禦陣을 御視察하시고 다시 西湖의 風景을 御賞美하신後 同十一時半다시 飛行機에 御搭乘하사 上海로 向하시엿다

蚌埠山頂에서 第一線을御眺望

【蚌埠發同盟】南京에서 飛行機로 最前線御視察次로 蚌埠에 向하신 秩父宮殿下께서는 八日午後零時廿五分○○에 御到着 ○○部隊長以下諸將官의 人事를 바드시면서 ○○으로向하사 ○○部隊長으로부터 最近의 狀況을 御聽取하신後 ○○宿舍에서 各部隊長等과 極히 御簡素한 御晝餐을 하시고 同二時十分 淮河鐵橋로 向하사 敵에依하야 破壞된 鐵橋와 따로 我鐵道部隊가 겨우 二十日間이란 驚異的 短時日間에 完成한 架橋에 對하야 佐藤偵部隊長의 說明을 매우 御熱心히 御聽取하신後 前線將兵에게 親히 御慰勞의 말슴을 賜하시고 다시 殿下께서는 蚌埠公園의 蚌山頂으로 向하사 一望下에 바라보게된 蚌埠市街와 前線一帶를 御眺望하시면서 公平中佐로부터 臨淮關及鳳陽方面의 狀況說明을 드르신後 同三時十分다시 ○○으로부터 南京에 御歸還하시엿다

北支各戰場御視察

【北京發同盟】秩父宮雍仁親王殿下께서는 金枝玉葉의 御身體로써 親히 北支에 御飛來하사 一週間에 亘하사 各戰場을 샅샅이 御視察하시엇다 殿下께서는 去十二日午後 三時三十分 御召機로 ○○飛行場에 御着하사 寺內最高指揮官 堀內參事官 以下의 御出迎을 바드시어 御宿舍北京日本大使館으로 드러가시엇다 十三日午前九時四十分車로 司令部를 御訪問하사 寺內最高指揮官과御會談 約三時間에亘하여 北支戰況을 委曲御聽取하시고 午餐을가치하신後 御自動車로 通州에向하사 지난事件犧牲者 墓前에 御親히 弔慰하신後 同地守備隊屋上으로부터 當時의 決死的 戰鬪의 자최를 御視察하셧다 十四日은 午前九時 御發 盧溝橋에向하사 約一時間에 亘하사 一文字山、盧溝橋鐵橋等에 서시사 附近戰鬪의 자최를 詳細히 御聽取하시고 午後는 紫禁城古宮 萬壽山을 御觀光하시엇다 十五日은 ○○飛行場으로부터 天津에 向하사 天津神社를 御參拜하시고 諸軍事施設을 御視察하신後 午後 天津飛行場을 御出發하사 颱風을 무릅쓰고 京漢線을 南下하시사 上空으로부터 涿州、保定、正定等의 激戰地를 御視察하시고 石家莊上空에 到達하신後 北京에 御歸還하셧다 十六日午前九時二十五分다시 ○○飛行場으로부터 石家莊에向하사 ○○部隊長을 御引見 京漢線、正太線等의 戰況을 詳細히御聽取하신後 感謝의御慰勞의 말슴을 賜하시고 空路로 太原으로 向하시엿다 殿下께서는 同地御視察後 石家莊에 御歸還、御一泊하신後 十七日 彰德으로 向하사 京漢線前段의 戰況을 御聽取하신後 午後北京으로 御歸京하셧다 十八日午前九時半○○飛行場을 御發하사 張家口로向하셧다 殿下께서는 御視察中 御引見한 各部隊長以下에 對하사 一一히御懇切의 말슴을 賜하신우에 軍事行動과 및 後方各種工作에 就하야 詳細히 御聽取하신後 御下問이 게시어 그 御仁慈하심과 御英邁하심에는 側近以下가 모두 感激不堪하엿다 十五日 颱風을 무릅쓰고 京漢線을 南下하실때의 勇邁하신 御態度는 側近者가 가장 恐懼하는바이엇다 (寫眞은 南京光華門城壁上에서 殿下)

皇軍意氣鄭州를威壓

敵軍必死的으로防衛

【北京三日發同盟】蔣介石이 徐州敗戰의 汚名을 雪辱하고서 中央軍의 精銳二十萬을 動員하야 防備를 鞏固히하고 잇는 開封은 北東南에 面하야 數條의 堅陣이 構築되여잇고 城壁도 鞏固한 것이만큼 隴海線要衝中에서 其所를 잃을수업스리만치 堅固하다 即一次 開封을 失하면 京漢線鄭州의 陣地는 即時崩潰되여 京漢線南段全部의 死命은 我軍에게 制될것이므로 蔣介石은 胡宗南에 對하야 어디까지 死守하도록 嚴命을나리엿다 이에 對하야 我軍은 徐州圍攻略한餘勢를몰아進擊을繼續하는데 最近에는 蘭封을攻略하고 開封을 指呼裡에 眺望하면서 意氣가 더욱 旺盛하야 鄭州를산곽威壓하야 士氣全然喪失된 支那軍은 겨우 蔣介石直系軍의 戰線參加로 戰鬪體形을維持하는데不過하다 蔣介石은 開封鄭州敗戰의 結果가 直接漢口防衛에 困難을 招할것을 念慮하고 極秘裡에 政府諸機關의 奧地避走準備를하고잇다 最後의 手段으로 我軍이兵力을 集中하기以前에 蘭封附近의 山岳地에서 攻勢를取하야 一擧에 頹勢挽回를 策하엿스나 神速果敢한皇軍의機動에마침내 其企圖를 喪失하고 水泡에歸하게되엿다 萬若 京漢線과 武漢三鎭의喪失이實現되면 蔣介石의政治的生命은 終한것과 同然이므로 開封會戰을序曲으로 鄭州京漢線南段의攻略戰에 蔣介石이가 最後의力量을 다할것이 想像되는만큼 戰局의歸趨는 注目된다

敵軍抵抗擊破코

淸水河에入城

厚和方面의戰況

【大同三日發同盟】去五月下旬和林格爾附近에서 我○○部隊에게 擊破되여 黃河右岸地區로 潰走한 傅作義는 또다시 그直系第百一師及門炳岳、石玉山、何柱國等包頭方面으로부터의 敗殘部隊約一萬을 糾合하야 秘密히 淸水河(厚和南方二百里)一帶地區로 集結을 企圖하고잇는것을 안 我○○部隊는 包圍態勢를 取하고 主力을 敵後方에 配하고 形勢를 觀望하고 엇든바 敵이 集結을 終了하자 五月二十八日猛然히 各方面으로부터 一齊히進擊을開始하엿다 即東方平魯方面으로부터 進擊한 宮崎、外園等各部隊는 二十八日 어느듯白狼溝附近에進出 內長城線에據하야 頑强히 抵抗하는 何柱國의 手兵三千을 擊破하고 淸水河平地로 進出하야 大膽하게도 騎兵으로써 敵陣地에 突入하는勢를 取함에이르럿다 敵은 淸水河東方高地東榮莊方面서 西方十里되는새의 山中에 防禦陣地를構築하고 傅作義軍百十師及 何柱國軍五千을 派遣하야 猛烈히 抵抗을試한바 三十里晚河野、有田加藤의 諸部隊는 서로 前後하야 前線으로進出、彼我間에 猛烈한 激戰이 展開되엿다 我各部隊는 彈丸雨飛하는 中을 一齊히 肉迫突擊을 敢行 同夕刻에 此等陣地를 占領한바 敵은 多數의 死體를 遺棄하고 潰走하엿다 一方北上하야 和林格爾方面으로부터 前進한 中島、淸水、乾久、野村 各部隊는 前面의 門炳岳軍을 擊破하야 三十日 一軒房子를 占領하고 上磨子附近으로 進出 또 西北 托克托方面으로부터 黃河를沿하야 南進한 吉良、小野田兩部隊는 喇嘛灣附近의 既設陣地에 依據하야 頑强히 抵抗하는 石玉山軍에게 猛擊을 加하야 二十九日夜 마츰내 이를 占領 三十日 여느덧 淸水河西北地區로 進出하엿다 어가티 包圍陣形을 壓縮하는同時에 三方面으로부터의 猛攻에依하야 敵은 大混亂에 陷하야 三十日夜半淸水河를 放棄하고 南方長城線水泉營을 向하야 一齊히 潰走함에至하엿스므로 我軍은 一擧에 追擊戰으로 옴겨 三十一日午前十一時半 進擊部隊는 堂堂히淸水河에入城 日章旗를 飜揚하는同時에 아직도 猛擊을 緩和하지안코 黃河北岸老牛灣及 水泉營으로向하야追擊中이다

人事·集會

▲古川兼秀氏(總督府圖書課長)渡東中七日午後四時二十三分京城驛着歸任豫定
▲森長文氏(朝鮮總督府事務官)張家口赴任人事次來社
▲金源榮氏(在京學園聯合會理事長)運動會人事次同上
▲帖佐第次郎氏(京城學院聯合會理事長)運動會人事次同上
▲李鍾麟氏(天道敎會大宗司長)黃海道敎會視察을忘了하고 三日午後歸京
▲朴陽信氏(同共宣觀員)同上
▲金光洙氏(本社營業局長)社務를帶하고 四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驛發 東京方面에出張 期間은約二週間豫定

少年朝鮮日報今日發行

옴 허벅고 퐁피 증렬가 靑山膏

國民靴大特價八圓五十錢!
舶來品代用總革靴
多年의努力으로 舶來品代用에完成을得한 今日 에는오로지 過去의 江湖諸位의 愛護하여주신 結晶으로 몃삽고 滿天下에 大宣傳하기爲하여 特製國民靴로 命名하고 大廉價¥8.50에 此期限一漏의恨이업서提供하오니勿失此期하시고 一次愛用하셔라
二二號 國民靴
型錄請求次第無代進呈
注文方法 足型을그리고靴文數와住所氏名을明記하신後送料로써 郵便切手三十九錢을必히添付하여書信注文하십시오
平安製革社洋靴部 平壤府大同郡里院 私書函八十七號 振替京城一九四三四番

OBANA流線型 高級萬年筆 正十四金ペン代用附
◆絕對保證◆
萬一合意치아니하시면交換又는反金
宣傳中特價
號A 一圓二十錢 號B 一圓 送料二十三錢先金注文送料負擔
東京市豐島區長崎仲町1の2483 鈴木製作所販賣部 振替東京93319番

모양잇고 튼튼한 별표고무신.
별
별표고무신
中央商工株式會社

開運의好機는只今!
名觀相家
聖龍先生의判斷은如神
京城相學院長
京城相學院

賦年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府縣銀行代理店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資本金參千萬圓 頭取 林繁藏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本社營業局直通電話
廣告部 本局四〇三〇番

鐵原·順川(北部中央線)實測完了 明年부터建設着手

四千五百萬圓豫算을來議會에要求

完成되면中央線、滿浦線、京釜線連絡

철도국에서는 경원선(京元線)철원역(鐵原驛)으로부터 만포선(滿浦線)순천역(順川驛)까지의사이 약이백키로에 북부중앙선(北部中央線)을 신설하려고 그동안 실지 측량을 하든중 이엇는데 요지음에 드디여끗낫스므로 사천오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명년도부터 삼개년계속사업으로 착수할계획을 세웟다 오는십이월 통상의회(通常議會)에 이예산을 제출하기로 되엿다한다 이선로가 완성되면 남북으로는 중앙선과 경부선(京釜線)에 북에는 만포선에 련락하게되야 산업개발과 교통상에 큰변혁을 이르키게될터이라한다

北支로부터 支那語講師兩名 總督府에서招聘

총독부에서는 일지제휴추진에 적극적 활동을하기위하여 금년도부터 전문학교 실업학교에지나어의 교수를 실시하는중인데 다시 그교수의실재적 강화를도모키위하여 벌써부터 북지신민회(新民會)로부터 지나어 강사를초빙하고서 교섭중이든바 그회에서도 이것을 쾌락, 량언보(梁思文)、김보천(金保天)양씨를 파견할것을결정, 양씨는 사일북지를떠나 천진에들럿다가 오는칠일오후두시삼십삼분 경성역착『노조미』로 입경하기로됏다 양씨착임한뒤에는 주로 전문학교방면의 지나어교수를 담임하여 조선에서의 지나어의 실제교수에 당할것으로 일지문화제휴의 첫거름으로 기대가크다

移民協會組織

【春川電話同盟】강원도에서는작년봄 칠백호 금춘이백칠십호의 단체이민을 만주에 입식하여조흔성적을 나타내이고잇는데 그사업은 아프로십개년 동안을계속적으로 하기때문에 강력적지도기관으로서 이민협회(移民協會)를 조직해가지고 현지의선전지도 조성의 세부문에 빠처 이민사업의완벽을기할 계획이라한다

徽文中學 陸上大運動會盛況

서내원동정(苑洞町)에잇는 휘문중학교(徽文中學校)에서는 금사일오전팔시반부터 동교교정에서 제십오회교내 육상대운동회(校內陸上大運動會)를 개최하엿는데 수천관중의운집아래서 팔백여명생도들의 약동은 자못볼만하엿스며 대성황리에 동오시에 폐회하엿다

敎會設置도許可制

佛敎其他宗敎規則도一部改正

宗敎規則改正案一部修正警務局에廻附

작년겨울이래 총독부 학무국에서 초안중이든 조선종교규측(朝鮮宗敎規則)개정안은 지난오월중에 탈고(脫稿)되엿스므로 방금경무국에 회부하야 합의를구하는중인데 경무국으로서는 최근여러가지 정세가 격변하엿슴에비치워 현재성안된 개정안만으로는 원활적절을기하기 어려운바 잇는즉 내용을 더욱강화철저할필요가 잇다는 의향으로일부수정의견을 부치어 다시 학무국과 절충한후 심의실에 회부하기로되엿다 그리하야 느저도오는구월부터는 실시하게될 모양이다 이제개정안내용의 대개를 들건대 현재조선안에잇는 종교중에서 불교(佛敎)신도(神道)기타종교는 전부사찰(寺刹)혹은포교소(布敎所)종파관리자(宗派管理者)가허가제로 되엿스나 오직 기독교(基督敎)만은 전부 게출제로되어잇서 종교의통제와 균형이되지못하야잇스므로 이번에 종교규측(總督府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야 기독교의 교회당혹은 예배당신설과 교파관리자측 각교파의 최고지휘감독자도허가제를취하는동시에 불교신도기타종교에도 포교규측의 일부를개정하는것이다

亡友를追憶끄레 自殺企圖五回

崇高한이友情哀話

신록의시제도 원인모를 제복처녀이운옥(李雲玉)양의 자살사건이생겨난 천리교학원(天理敎學院)기숙사에 요번에 또다시자살미수사건이 일어낫다

그것은 전기이양과 한방에거처하던 임인순(林仁順)(二○)이란 여학생의 자살미수사건으로 임양은 시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에자기부모가 살고잇스며 이학교기숙사에서 운옥양과 한방에 거처하고잇섯는데 이양이 실종한뒤 그가마침내 자살해버린것이판명되자 그도운옥양의 뒤를 딸켓다고 집을나가서 지난오월이십오일밤 한강에 투신하랴다가 구조된뒤 죽첨정자택에서 전후다섯번이나 끈기차게 자살을 도모하엿스나 집안사람의감시로 수행하지못하고 지금은집에서 보호감금을 당한뒤 학교에도 나오지못하고잇다 임인순양의 자살하라는원인을 살펴보면 이양의처지를 잘알고잇는임양은 그를동생처럼 귀여워하엿스며 이양은 인순이가 병으로몸이괴롭시약하므로 이것을 동정하면서 두사람이생사를가티하자고 약속하게되엿는데 뜻밧게지난오월구일운옥양이실종되자 그의행방을 탐지하기에 목숨을애끼지안코도라다녀 보앗스나십오일에 이르러 사랑하든 운옥양이 자살한것이 판명되엿스므로 마침내 그의뒤를 딸아가겟다고 자살을도모한것이다 (사진은×표가임양)

『女子로自轉車가뭣?』 옵바叱責에含忿 李雲玉孃自殺理由判明

별항=제복처녀 이운옥(二○)양의 원인모를 자살사건은 천리교학원(天理敎學院)당국은 물론 그기숙사에서 함께거처하든 동료들까지도 전연 알길이업든중 그가죽은지 이주일이 넘은 오날에서야 비로소 굿게닷치엿던잠을쇠가열리게 되엿다 즉이양이자전차대회에서 전조선 선수권을 획득하자 그는곳 여자의 구실을시작하야 일주일동안이나 자리에 누어잇섯스며 병만나흐면 자기동료들과함께우승축하회를 열라고약속을 하야노코 건강회복만기다리고잇섯다 그가집을나가던 오월구일저녁에는 축하회비를엇기위하야자기옵바인청엽정이운봉(李雲鳳)씨에게 갓는데 원래이양은 곤궁한가정에서 병석에누어잇는 아버지의치료비를 엇기위하야 어려서봉천방면에 오백원을밧고팔리여갓다가 아버지가 죽은뒤작년에서야 겨우기한이 지나서 고향엘도라왓슬만큼 평소부터 옵바와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지극하엿스므로 그날밤에도 동료들을모아노코 자기옵바에게만가면 옵바는 반겨서 돈을 주리라는 기대로 청엽정을 갓스나 옵바는 그만한것은 넉넉히가지고잇스면서도 구지 거절해버리고『여자답지못하게 자전차를타는것이 무엇이냐』꾸지젓스므로 반기여주어야할옵바에게서 꾸지람을듯고 얼마되지안흔 돈을냉낙히거절하므로 자기는 몸을팔아가면서라도 육친에게 희생이되엿거늘 만치안흔 축하회비를거절당한데서 오빠를 원망하고그길로 한강에나가서 투신자살한것이 이양과한방에 거처하며형의제와가티지내던 임인순(林仁順)양의 자살미수사건을 기회로 판명되엿다

婦女屋外勞働勸奬과 農民의勤勞를倍加

討議될社會主事會議重要議題

총독부에서 유일부터 삼일간 제이회의실에서 각도사회주사회의(各道社會主事會議)를 개최한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동회의에서는 군사후원사업의 강화와 노동력수급조정에 관하야 각각필요사항 삼십여항목을 드러서 지시협의하기로 되엿다

그중에 노동력수급조정에관하야는 금춘이래 각도에 전임직원일명식을 증원하야 노동력수급조정에 노력케하야 지금까지 약만명의 노동자를 알선하얏스나 이것은 작년도로부터 너머온공사에 종사하는것이오 금년도신규공사에 대한것과 중요광물증산계획실시에 의한 광산노동자수급조정은 지금까지 조곰도 하지못하얏슨즉 이것은금후의일이다, 일반공사와 광산노동력충실에대한것은 농촌에서구하지 안흐면 안되게 되엿는데 이러케하면 결국 농촌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할념려가잇슨즉 위선

一、農民의勤勞倍加
二、婦女의 屋外勞働을 積極的勸奬
三、靑年의勞力奉仕

등 세가지항목의 철저를기하여야한다 그리고 조선은 내지와 만주가티 사람이부족하야 노동력이 부족한것이아니라 사람은 넉넉하나 그근로정신이 충분히 발휘되지못하야 노동력이 부족한것인즉 시국관계상 근로정신을 더욱왕성케하자는것등이 이번회의에서 노동력수급에 관한 협의와 중요사항이다

"발"에重壓

『까솔린한방울은 곳피한방울』이라고 할만치 군수품으로 중요한『까솔린』 갑시비싸저칠십만부민의발에 중압을부르고잇다 한때는 싸다는바람에 일약시민의 총아가된 꼬마택시ㅡ가 현재의 최저료금 한『카로』 팔백미돌에 삼십전으로는 『까솔린』갑시비싸며 부분품모든것이 오른 지금도 저히영업을계속할수업스니 사십전으로 올리도록하여달라고 하루날 경기도보안과에 인가원을 제출하엿는데 이것을본 경기도자동차협회『택씨ㅡ』부에서는애기가비싸지는데 어른이 가만히 잇슬수업다는것도 아니겟지마는 사흔날 오후두시반부터 부민관에서 림시총회를열고 대책을협의한결과 현재의 최저요금오십전을 칠십전으로하고 초과거리 육백미돌에 십전을 오백미돌로 올리기로결의되여 간부들이 사일오전 허가관청인 도보안과를 방문하고 허가원을 아직제출치안코 구두로양해를구한바잇섯다 보안과에서는 하나는 사활이라는 [illegible]이며 시민의 일상생활과가장밀접한관계를 가저고잇는 교통기관에관한문제인만큼 극히신중한태도로 실지업적기타를 충분히조사하기로 되엿스므로 업자의요구가 그대로 실현될가망은 대단박약하게보힌다

大型"택시"도한목 四割引上을決議

最低料金五十錢을七十錢으로

그러나實現性은薄弱

"戶別稅"의過重은 初等校擴充增稅때문

□中村京城府稅務課長談

지난오월말일까지에 납입하여야할경성부 호별세(戶別稅)납입고지서가 겨우 그날최종일에야 일반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되여 기한내안내면 꼬박꼬박독촉료를 물게되는 세금의문제이니만치 일반납세의무자를 크게당황하게 맨드러결국 경성부당국에서도 이호별세납입기만은 한달을더연장하야 륙월말일까지로기한을 고치도록 도령(道令)개정의건을 사흔후 중촌(中村)세무과장이 친히 경기도지사를 방문하고 신청하엿는바 이번 이호별세납입고지서를바든 부내칠만팔백이십칠호의 납세의무자는 이부당한 납입기한에대하야 불평을먹엇슬뿐더러 일반으로 그세금액수가 작년에비교하야 월등하게노파잇고 특히이영향이 조선인측에 심하여잇슴에 일반의불만과 의아가자못노파잇다 그러나 이것은 경성부세무관계를 아주모르는 일반납세자가가지는 생각으로서 금년세액이 작년에비겨서 증가되여잇는것은결국 그동안 도세호별세(道稅戶別稅)의 부과률이 노파저서이에 따라서 그러한것이아니라 지난소화십삼년도부터경성부제이부특별경제(第二部特別經濟)로 부내 초등교육확충에관한 십개년간삼할증세(三割增稅)의 결정에 따라 소화십삼년도의 세금실적의 삼할식을 이후십개년간에가산하여감으로써 나오는 결과이다 그럼으로 작년도에도 그전년의 삼할가량이 더하야본세(本稅)일원에 대하야 사원구십구전이엇든것이 금년에는 본세일원에대하야 오원칠십칠전으로 증액된것이다 지난소화십일년도매호당 평균부과액이 삼원오십전이엇는데 십이년부터는 그삼할인 일원오전식이 매년증가되여 십년후에는 평균십사원의 표준으로 증가하여가게된다

이에대하야 중촌(中村)세무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작년보다 만히진것은 아시는바와가티 제이부경제의삼할증세로 말미암은것인데 삼할증세라고하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따진것이고 그해그해의 납세자의 자격과 인원의변동으로 삼할까지 증세치안트래도되는터인데 금년도에는 실제로는 이할증분이 증액된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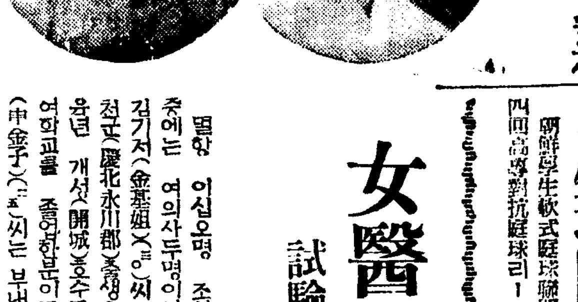
李王家美術館 五日午后부터開館

이번에 새로생긴 덕수궁(德壽宮)내의 리왕가미술관(李王家美術館)은 오일오후부터의 일반개관을 하로압서서 사일오후한시 총독 총감이하 각방면이사를초대피로하엿다 신미술관내에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高麗)리조시대에 이르기까지 도자기 불상 그림등비장의것 삼천점을 진렬하야 완연 조선의 산미술사(美術史)의감을 주고잇다 (사진은미술관내광경)

女醫또두名

試驗難關을堂堂突破

기뻐하는金基姐、申金子氏



별항 이십오명 조선인합격자중에는 여의사두명이잇다 그중 김기저(金基姐)(二○)씨는 경북영천군(慶北永川郡)출생으로 소화육년 개성(開城)호수돈(好壽敦)여학교를 졸업한분이고 신금자(申金子)(二五)씨는 부내서린정(瑞麟町)일백사십칠번지에살면서 소화칠년 배화(培花)여학교를 졸업하엿는데 두분이 모두금춘경성여자의학강습소를 졸업한분이다(사진【우】는 신금자【좌】는 김기저씨)

背恩忘德한조카

배은망덕도 분수가잇지ㅡ부내통의정(通義町) 이십륙번지자산가한명이(韓明[illegible])씨는 수일전 책상설합에 너코굿게 쇠를잠거두엇던 주식회사 천향각(天香閣) 주 일백오십주 삼천원불입(한주 이십원전액불입) 한주권 [illegible] 업서진것을 발견하고 대경실색하야 종로서에 계출하얏다 동서에서 조사한결과 작년팔월부터 그집에 머믈르고잇던그의족하 경북영주(榮州)태생의 김악길(金惡吉)(二○)(특히가명)의 소위로판명되여 각처에지명수배망을 느리고 그의행방을 엄탐중이다

醫師試驗 第三部合格者發表

지난오월중 총독부경무국에서시행한의사시험(醫師試驗)제삼부합격자는 다음과가티 사일총독부로부터 발표하얏는데전부삼십이명중조선인은이십오명이다

◇醫師試驗第三部=▲鄭萬讃▲友石通雄▲趙誠奇▲金泰鎭▲金俊旭▲李錫九▲唐澤利政▲井本德治▲盧昌煥▲朴斗正▲崔孝稷▲張仁甲▲文熙煥▲李基璉▲田淵基▲金鳳烈▲高橋豐▲李道淵▲金一郎▲申金子▲金基姐▲金凞彬▲堀內寬一▲金炳珠▲徐基洙▲藤田保熙▲小林政子▲趙日福▲金順河▲朴箕衡▲朴承玉▲殿老星

紙上眼科

問 [illegible]

答 [illegible]

全朝鮮高專 庭球開幕

朝鮮學生軟式庭球聯盟主催의第四回高專對抗庭球리ㅡ그第一日은 四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코ㅡ트에서 열리어 佛專 醫專 高工 法專 高商 普專 延專 高農 普專等 九個校의 代表選手의入場式이잇서 먼저 國旗揭揚 國歌奉唱을 마친後 [illegible] 普專의洪性夏氏로부터 [illegible] 優勝旗返還과 參加選手一同을 代表하야 普專洪性熙君의 [illegible]이 잇난後 各校의熱戰은 열리어 夕刊마감까지의 戰況은다음과갓다 (寫眞은 同庭球戰光景)

【[illegible]】17…5【[illegible]】
○([illegible]) 4…1 ([illegible])×
○(陳在九·金東烈) 4…0 ([illegible])×
○([illegible]) 4…0 ([illegible])×
×([illegible]) 1…4 ([illegible])○
○(金甲壽·趙東勳) 4…0 ([illegible])×

【醫專】16…11【佛專】
○(竹中·小田) 4…2 ([illegible])×
×([illegible]·浦田) 3…4 ([illegible])○
○([illegible]) 4…1 ([illegible])×
×([illegible]·池田) 1…4 ([illegible])○
○(恒吉·水田) 4…0 ([illegible])×

【[illegible]】20…5【高農】
○([illegible]) 4…1 ([illegible])×
○(李文淳·菅) 4…2 (山田·田代)×
○(石田·[illegible]) 4…0 (高橋·中村)×
○([illegible]) 4…2 (青木·岸)×
○([illegible]) 4…0 ([illegible])×

【高商】18…6【高工】
○([illegible]·松本) 4…1 ([illegible]·桑原)×
×([illegible]) 2…4 ([illegible])○
○([illegible]) 4…0 ([illegible])×
○([illegible]) 4…1 ([illegible])×
○([illegible]) 4…0 ([illegible])×

【[illegible]】17…10【[illegible]】
○([illegible]) 4…3 ([illegible])×
○([illegible]) 4…1 ([illegible])×
○([illegible]) 4…2 ([illegible])×

○([illegible]) 4…0 ([illegible])×
×([illegible]) 1…4 ([illegible])○

【法專】17…6【[illegible]】
○([illegible]) 4…0 ([illegible])×
○([illegible]) 4…2 ([illegible])×
×([illegible]) 1…4 ([illegible])○
○([illegible]) 4…0 ([illegible])×
○([illegible]) 4…0 ([illegible])×

全日本中等蹴球 朝鮮中央豫選

十五日부터三日間

朝鮮蹴球協會中央支部主催의第三回全朝鮮中等學校蹴球選手權中央豫選會는 第二十回全日本中等學校蹴球選手權朝鮮中央豫選을 兼하야 來十五、十六、十七의三日間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參加資格은 同支部加盟團體로써 昭和十三年六月一日現在滿二十歲未滿으로 當該校籍一年以上在學者(一學年은此限에不在)에限하며 參加校名、部長監督、主將、選手、位置、學年及入學年月日을明記한學校長의 選手資格證明書等을添付하야 六月十日까지 京城府[illegible]町七四 同支部事務所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그리고抽籤은 十二日午後一時에 同支部에서 [illegible]會席上에서 行하기로 되엿다 同大會의 優勝校는來二十二、二十三、二十四日에 열리는 朝鮮地方豫選의 中央代表權을 附與하기로 되엿다

早慶野球戰

【東京電話】待望의早慶野球戰은 今春六大學리ㅡ그의 掉尾를裝飾하는 華戰으로 今四日午後一時二十六分부터 神宮球場에서 [illegible]田氏審判아래早大先攻으로開幕되엿다 兩軍의戰績은 이미五十六回對戰에 早大三勝리ㅡ드의 뒤를이어 第五十七、八回의 對戰인데 이날夕刊마감까지의兩軍의戰況은다음과갓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早大	1	0	0	4	0	0	×	×	×
慶應	0	0	0	0	0	0	×	×	×

◇投捕…(早大)近藤―小楠(慶應)中田 高橋―櫻井

六歲少女失踪

【保寧】지난이일 오후한시경에 충남보령군웅천시(忠南保寧郡熊川市)에서는 유세소녀가 실종되엿다는데 그는 동군주산면창암리(同郡珠山面倉岩里)에잇는 조길하삼녀 동렬(趙吉夏三女東烈)(六)이라는데 이날은 마침 웅천시일이므로 이웃사람들과 가치 신을사러왓다가 어디론지 가버리엿스므로 부모는 크게걱정을 하고잇다고한다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三〇分 어린이야기 韓小濟 ◀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講演 成鶚泰 ◀八時 라디오常識講座 [illegible] 沈友燮 ◀八時三〇分 俗歌 李蓮子 金思亭 ◀八時四五分 新作이야기 成東鎬 ◀九時五分 鳴鶴調 金素姬 歌手 韓成俊 ◀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中等二)李完應

第一放送 ◀午後六時(東)童話 ◀六時二五分(城) 講演 ◀七時三〇分(城)라디오常識 ◀八時(東) 獨唱 ◀八時二五分(東) 謠曲 ◀八時五五分(大) 物語

色鉛筆

날이 또흐리기시작한다 내일의 일요일까지 비가오면 최근매일요일을 두고 네번이나 비가겹퍼오게되는데 ◀이때가 농촌에서는 모심으는때이라 한입헤동안 날이 들고 비가하로다 이를내린다면 농사에야 그만일것이다 벌써부터 풍년패가 들엇다고도하나 ◀도시사람들로서 특히학교、관청、은행、회사에 다니는사람들로서는 기다리고 기다렷든 일요일에 비가오니 모처럼 쉬이려던날이 헛되히 된다고 실롱조리를 한다 그러나시대는 절약시대라 비때문에 집에들어안저 잇기때문에 쓴돈이 안씨워조켓다고나헐가

夏節은危險한時期

미리부터防備하자

只今부터 날이漸漸더워지면 누구나食慾이줄고 體力이減退되여抵抗力이弱하여지는까닭에 病弱한분은勿論 健康한사람도 消化不良과 夏瘦症等에걸리기쉬웁습니다。

이것은 夏節이되면 大槪淡泊한 菜食을 主로하는까닭에 榮養의供給이 急速히低下되는關係입니다。그러므로 暑炎이오기前에 榮養을充實히하야 體力을强化하면 夏瘦症이나 다른慢性病等의 誘發을 防止할수잇습니다。

네오톤(NEOTONE)은 人體에絶對必要한 비타민榮養素를供給할뿐아니라 呼吸器와胃腸을튼튼케하는 有效成分으로써 消化機能을活潑케하야 食慾을增進하고 體力을增加하며 身體를强壯케하는再建設的作用이 卓越하므로 平素에病弱한분이나 急速한榮養低下로體力이減衰되는분은 本劑로써 榮養을供給하고 體力을增進시겨 夏瘦症으로因한 傳染病·呼吸器虛弱·胃腸病等을 防止해야되겟습니다

(全國有名藥店販賣)

(本劑를服用하실때는먼저醫師에게問議하야주십시오)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 産前産後·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illegible]

包裝 小瓶 中瓶 大瓶

네오톤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アイスケーキ機 冷凍機販賣 オカモト大キンシキ(カタログ進呈) 小松電氣商會出張所 [illegible]町八九番地 電話二八一番 代理店特約店募集

青年諸君!光明ハ技術カラ求メヨ [illegible]

コドモのねびえかぜに オイン

出張所長招聘 太平生命京城支社 [illegible]

土地 [illegible]

朝報案内

恩給 [illegible] 鄭商會

理想の強力殺虫液 フマキラー

山葉オルガン 山葉ピアノ 京城鍾路 山口樂器店

耳鼻咽喉科 姜 醫學博士 姜日永 京城仁寺町一三一 電話光三一七一〇番 入院室完備

胃腸을튼튼케하고 身體를强壯케한다 肥滿劑 小川藥院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夏節의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慾을增進함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잇슴

世傳秘藥 [illegible]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內科 一般外科 [illegible] 入院病室完備 電話 本局(2)一八四八番 本局(2)七二七五番

廣壯里 광나루건너새藥水 遊園地에大小人풀·銀沙場貸보ㅡ트 모ㅡ다뽀ㅡ트江건너편은 大本山봉은사 車賃東大門에서往復三十錢 人道橋밋헤는遊船?貸보ㅡ트具備 다리에서오리쯤거러가면 녹음이욱어진경치조흔곳에새藥水場 車賃東大門에서往復三十錢 京城軌道會社

アモン パパヤ 藥用·粉末 パパヤ洗粉

KINTSURU
VEGETABLE
POMADE
純植物性
金鶴ポマード
머리에손질할때마다
뚜렷이나타나는
긴쓰루포마ㅡ드
●毛生호르몬·코레스테린配合
(純植物性)
金鶴ポマード
긴쓰루포마ㅡ드
요새青年치고『긴쓰루포마ㅡ드』를쓰지안는분이잇슬가요
香氣라든지、潤澤이라든지가原料의純粹함을證明하는同時에青年의愛好를밧게되는것입니다
金鶴香油 本舖 株式會社 野村商店

家庭

성미때문에기르기 힘드는막네둥이

가튼또래의동무들을맨드러주어 사교성을심어줍시요

막내둥이가 맛자식보다 키우기 힘이든다고합니다 그것은 막내둥이는 대개 재혜가는긔 조숙한편이며 감정상으로보아서는 까다로운 까닭입니다。이조숙이라는것은 반드시 나뿐것만은아니나 자혜가잇느니만큼 형이나 누이에게대해서 캐고따저고하는버릇이잇스며 경쟁심을 이르키는수가만습니다 아무리케해도 형이나 누이를 따를수업다는 적은 비굴감을갓는한편 형이나 누어한테 무엇을 어더드리아는것이잇느니만큼 악만해도 버평적으로 거우러지기쉽고 좀어떠케하면 남의결시점을 살것드리서 해내야 속어서 원합니다。이것이막네둥이의 허세이며 약하고 적은물을 직하기위한 허자세엽니다

막내둥이의 감정에 이러케까다로운것은 형이나누어가 자기를 우숩게역인다는 생각에서 그러케되는것이며 언제까지고 형이나누이보다 나어볼수업다는데서 일종의 빅감이폭발하는셈입니다 흔히

『우리끄레에는 영리해…… 재형이 꿈적을 못해요』

하고 자랑하는 어머니가게시지만 실시상결코 자랑꺼리가안되는겝니다

막내딸은 여편가하면 역시막내아들과 마찬가지로막네둥이특유의열시둥감(劣等感)을 가저고잇습니다 단지 사내에와 다른것은 리지를 내세우고 뎀버드는것이아니라 울거정여자 되는것입니다 눈물을 무기로삼고적은 몸을보호하라고합니다 사내아이가튼면 맛대통일을여자인만치 우름으로 해결하랴고듭니다

그러나?막내딸은 옵바나 형한테 귀엽을바다응석바지가되어버림으로 조곰만비위에틀리면 곳우러버립니다 지혜로보아조숙인것은 사내막내둥이나마찬가지입니다 남자에거나 여자에거나간에 막내둥이를 어떠케지도해야할것인가에 대해서 각거그성질을 잘알면 자연히 알수잇는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긴요한것은 막내둥이의 열등감(劣等感)을 업새일것입니다 즉막내둥이에게 자신을 갓도록함입니다

「너는아직어리니까」하는다든지「막내둥이니까」하는투를보여서는 자미적습니다

막내둥이는 너무귀엽을 밧기때문에 안의군수되기쉬읍니다 집에서는 평장이버리며행패를부립니다 그러나바게나서는 [illegible]니다 이성질대로 그대로자라면 의례히 사교성업는사람이되고 맙니다

그럼으로 어머니되신분은 될수잇는대로 막내둥갑되는 동무를 만히맨드러주어 남아페 부끄럼타는기가업시명랑하게 사귀는성질을 걸러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막내딸의 경우는 알우업는무엇에 겁내는버릇이자라 동성연애에 빠진다거나 이성(異性)을 구렁이처럼 역인다거나하는 성질이되기쉽습니다

여기에서는 막내둥이의단처를드렷습니다만장처를들면 맛자식의 보수적인데비해서 막내자식은 진보적이니까막내둥이를 잘만지도하면 훌륭한일꾼될 인간을맨들수잇는겝니다

막내둥이라고 귀엽다귀엽다해서 그자식의 진취뎍립성을깨트려 응석바지를 맨들지 마십시요

상치쌈먹으면 피가맑아저요

그러나소독해서잡술일

채소는 지금이 당절입니다。오이 원두 파 생채가든것이 얼마던지 가가에싸여잇지안습니까 더욱 당철이만큼 갑도 그다지 비싼편은 아닙니다。요사이 상치쌈은 아조 별미일것입니다。이상치쌈은 몸에 대단히 조흔것입니다 혈액을 맑게하고 순환을 잘시키는것입니다。그리고 목구녕에 엇는 점막(粘膜)을 굿세게하므로 감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됩니다。더욱 몸이약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될수잇는대로 만히먹이도록 하는것이 조흡니다

조선서는 푸성귀의비료가 모두 똥이나 오줌을쓰므로 회충 조충이생겨서 채독를 염려가잇스니 생추쌈을먹을때는 완전한 소독을해야됩니다。소독만하면질대로 위험하지안습니다。

오이나 도마도가튼것은 더운물속에 너헛다꺼내면 소독이되며 기생충이 부러잇더라도 죽어버립니다。

상치쌈에는 물한되에 표백분 바사시만큼저 그속에다 상치분만 너헛두엇다가 깨끗한물에서 처서 먹도록하십시요

요새 상치쌈에는 아주 잇사귀가 조롱조롱 뭉치여진것이잇습니다 이런것은 소독물어 속기피 드리가지안흐니 솔로문질러 씻도록 하십시요

第20回 學生美術展覽會

會期 十月中 場所 本社大講堂

出品種別

◇中等部 —師範部・中學部—
東洋畵科
西洋畵科 —圖案含有—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畵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特選 各科若干人各賞牌正賞五十圓 優選 各科若干人各賞牌正賞三十圓
【初等部】特選 各科若干人各賞牌正賞二十圓 優選 各科若干人各賞牌正賞十圓
◇特別審賞 本社社長賞 一人百圓 (特選作品中에서一點을選하야授與함)

◇申請及搬入=申請과搬入은 同時에하되 「京城府太平通朝鮮日報社事業部」로 期日은 九月二十七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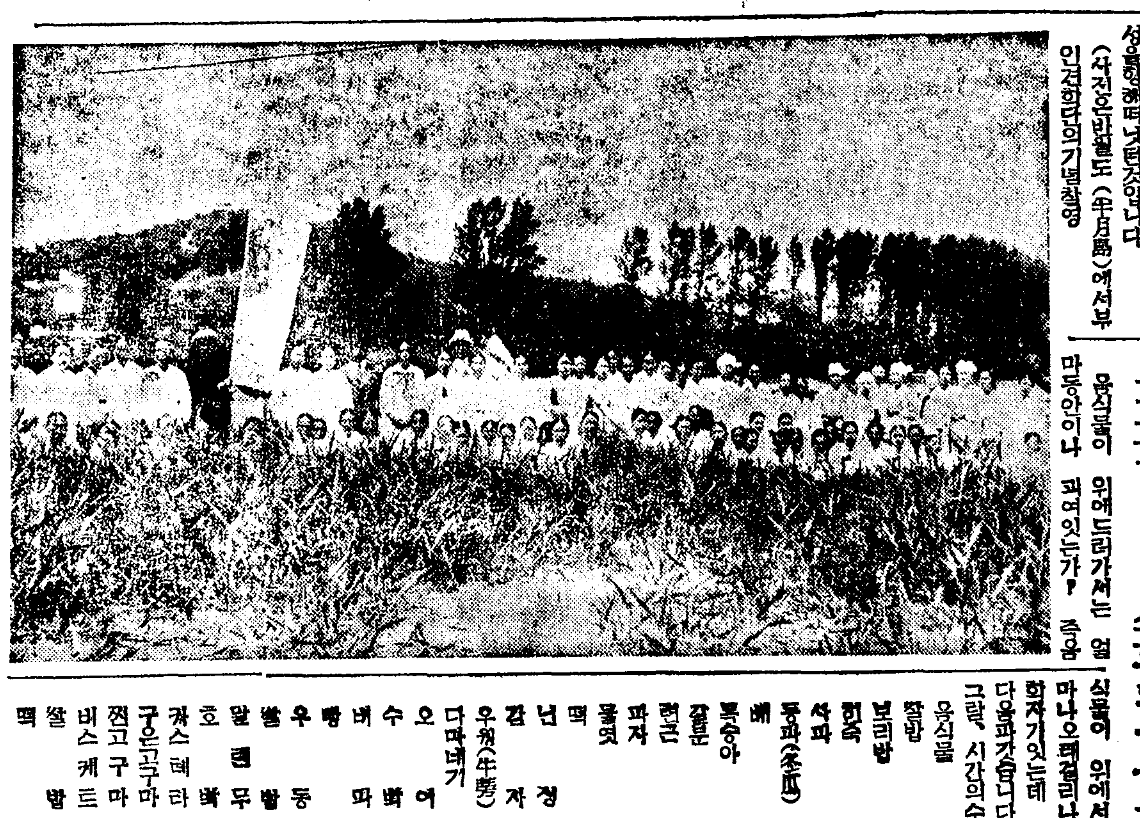
◇出品規定=本社所定의 申請書에 各項을明細記入하고 作品 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 作者氏名 住所와 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 明記하야 搬入할 (詳細規定은 葉書로 問議할일)

主催 朝鮮日報社

◇각광◇

婦人見學團 평양의 즐겁던하로

본사주최 부인견학단(婦人見學團)일행 백명은 본사사업부장 홍기문(洪起文)씨 인솔하에 일일오후엔지 사신분장열차로 개성(開城)에서 평양에도착 본사평남지사원일동의 환영을 바드면서 하로밤을 유경에서지난후 이일오전아홉시 본사평남지사원의 안내로 천하의명승 모란봉(牡丹峰)공원 전부을 유람어시 탐승했고 공설운동장(公設運動場)에서 열리는씨름 그네대회장에 입장하여 그네를뛰며도보고 뛰는것을 구경도하면서 단오(端午)기분을 마음껏맛보했다 다시"코ー스"를 꿈꾸의선경가튼 대동강에돌리어 준비했던 노리배에분승 대동강의명물어죽(魚粥)에 배를불리면서 능라도(綾羅島)며 반월도(半月島) 그리구 청류벽(淸流壁)의 승경을마음껏 완상하면서 어기어차 배를저어대동강을미끄러저나렷다 오후세시삼이분 떠나기를서러하면서도 어쩔수업시 그러나원기왕성하게 한면의낙오자업시경성을향해떠낫던것입니다



(사진은반월도(半月島)에서부인견학단의기념촬영)

음식 얼마나오래걸려 살로갈까요

소화되기까지의시간

음식물이 위에드러가서는 얼마동안이나 괴여잇는가? 즉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되는데 얼마나오래걸리나하는것을 연구한 학자가잇는데 그연구결과를보면 다음과갓습니다。(분량의 수짜는 그람, 시간의수짜는 몃시몃분)

음식물	분량	시간
찰밥	五〇	一、四五
보리밥	一〇〇	〃
흰죽	〃	〃
사과	〃	〃
동과(冬瓜)	〃	〃
배	〃	〃
복숭아	〃	〃
갈분	二〇〇	二、〇〇
편근	〃	二、一五
파자	〃	〃
물엿	〃	〃
떡	一〇〇	二、三〇
넌정	〃	〃
감자	〃	〃
우엉(牛蒡)	〃	〃
다마네기	〃	〃
오이	〃	〃
수박	〃	〃
버따	〃	〃
빵	二〇〇	二、四五
우동	一〇〇	〃
볶밥	一五〇	二、四五
말린무	一〇〇	〃
호박	〃	〃
카스테라	〃	〃
구은고구마	〃	三、〇〇
찐고구마	〃	〃
비스케트	〃	〃
쌀밥	二〇〇	三、一五
떡	〃	〃
좁쌀떡	〃	〃
토란	一〇〇	〃
죽순	〃	〃
홍홍	〃	三、三〇

그다음으로는 물종류가 위에고여엇는 시간을보면

물	一〇〇	一、一五
〃	二〇〇	一、三〇
차	〃	〃
맥주	〃	〃
물	三〇〇	一、四五
맥주	〃	〃
보리차	二〇〇	〃
되미스푸	〃	〃
사탕물	〃	〃
일본술	〃	〃
포도주	二〇〇	二、一五
커ー피ー	〃	〃

탄소(炭素)를주성분으로한식물은 가운데 위에머므러엇는시간이가장 오래것은 콩종류것이며 제목것은 보리인데 보리와쌀을 혼합한것은 그다음가며 그다음간다합니다。그런데 빵을 먹어소화되는 서간은 서양사람에비하야 동양사람이 오래된다합니다。그럼으로 일평의습관에 따라 소화가 잘되고못되고합니다。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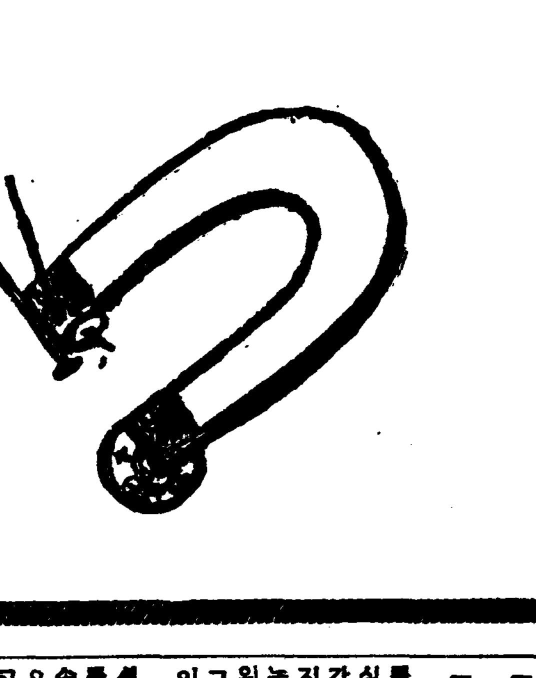
지남철

지남철에는 못 바늘가튼것이 달라붓습니다。

어련쇠말고 다른쇠는안부틀까요 니켈과 코발트라는쇠도 붓습니다。

구리 알루미늄 망간 어련쇠는 안붓습니다만 어재가지를 한데녹인쇠는 붓습니다。

(理學사람 윤박사)



長篇小說 愚氓 【48】

朴泰遠 作 / 洪祐伯 畵

白主事의계 (五)

배주사는 그러케 욱화가 제순으로 술주전자를 들고 나와 함수의 얼굴을 물끄럼 넘어로 빠안히 바라보고 잇는것이 마음에 조치는 안핫다。

그래도 그는 엽자에다 짐짓 가벼운 우슴조차 띄우고

『배 아님니다。』

하고 함수를 도라 보앗다。

함수는 몸을 고처안즈며 게정을 보앗다。보자 그에게도역서 기억이 엿섯다。아까 역에서 백가를 만낫슬때 한번 어대서 보임이 엿는듯십다 생각하엿던것은、그야 정말 영결집에서도 만날 임이 잇섯던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도 작년겨울에 설청은천을 바라고 해주를 떠날때、바루 자기 압좌석에 안저 잇던 그의모양이 그저머리속에 남어 잇섯던 까닭인 모양이다。

(그때 그남자가 바루 이남자요 따라가던 그여자가 바루 저여자엿던가?』

생각하니 세상은 좁고 일이란 공교로웟다。

『아이、차 타고 오시느라고 시장하시겟죠다。어서 좀 잘수서지요오。』

욱좌는 웟마루아래에가 서잇스채 생긋웃고 한마되 건네여 본다。

『공연히 수골 하셧습니다 바루 제골 따라 와에서 제실줄알 먹고 나려갈길이예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어세좀 잡수서지요오。』

『아니 정말 먹엇습니다』

사실 선락을 지날때 식당에를 다녀나온 그에게 지금 음식생각이 도무지 업다。웅색생각만 업는것이 아니라 화수는 지금、그대로 안악으로 가버리는것을、당장 거절하기가 어려웟、공연히 따라 들어 왓다고 그러한것부터 뉘우치고 잇는터이다。

그러키로 말하면 백주판 역서 일반이엿다。대원님의 분부를 거역한불、도리가 업서、화수를 이러케 집으로 안내하여 오기는 왓지만、게집이 한번보고 저러케「사축을 못쓰는」꼴어린 잘들이지 눈골이 시여서 못보게다。

그는、게집이、

『아야、그러지 마시고 어서 좀……』

하고、한말을 또한번 하려 도팟을때、어내 참다 못하여、

『그、약주가 다 식겟구면。어서 어리 내여。』

계집이 그저 들고 섯는 술주전자를 말해서、

『그、버 참 폐 옵다。선선하실철이요。』

화수의 얼굴을 훔쳐 처어다보고는 느욱 영창을 다더 버렷다。

『점섬을 참말 잘햇다면 그럼 약주라도 한잔 드서지요 뭐 서울이 돼놔서 아무것도 업에 마지설것이 업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물론 겸사의 말이다。손님 접대를 그만큼만 할수 잇다면 어데서든 남부끄러지는 안흘게다。남부끄러지안흔것은 물론 또 점심상 하나만이 아니다。아까 상이 들어올때 훔쳐 보아 알게지만 저윤지 고작하여 오륙년밧게 안되는 기와집이 크고 조촐하다 아니라 꾸며 노코 사는 품이 바루 행세하는 집안이다。

그가 무슨 재주로 이토록이나 버젓하게 차리고 지낼것이라? 이는 옹당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빼아슨 재물이풀 리엇슬것이어다……

함수의 눈아페 문득、이사람이 이러케 호화로운 생활을하여가기 위하여 죄업는 멧사구 혹은 몃십가구가 불행의 구렁이에 빠저들어가는 광경이 역력히 떠올랏다。이제 소반우에 노힌 고기 한점、김치 한쪽에도 필연코 죄는 영키고 원한은 맷치스리라 생각하니 점심을 갓먹은 그랏만이 아니라、그는 결코 수저를 들 용기가 안낫다。

비는 좀처럼 그칠상십지 안타。그러나 함수는 그곳에 잠시를 더 머물러 잇슬 생각이 업섯다。이러케 비가 쏘다지는데 어떠케 가겟느냐고 꽉 오늘밤은 자기집에서 묵고가라고 백가는 구지 붓들엇스나 함수는 마무가내로 고집을 세워그는 마침내 다시 역으로 나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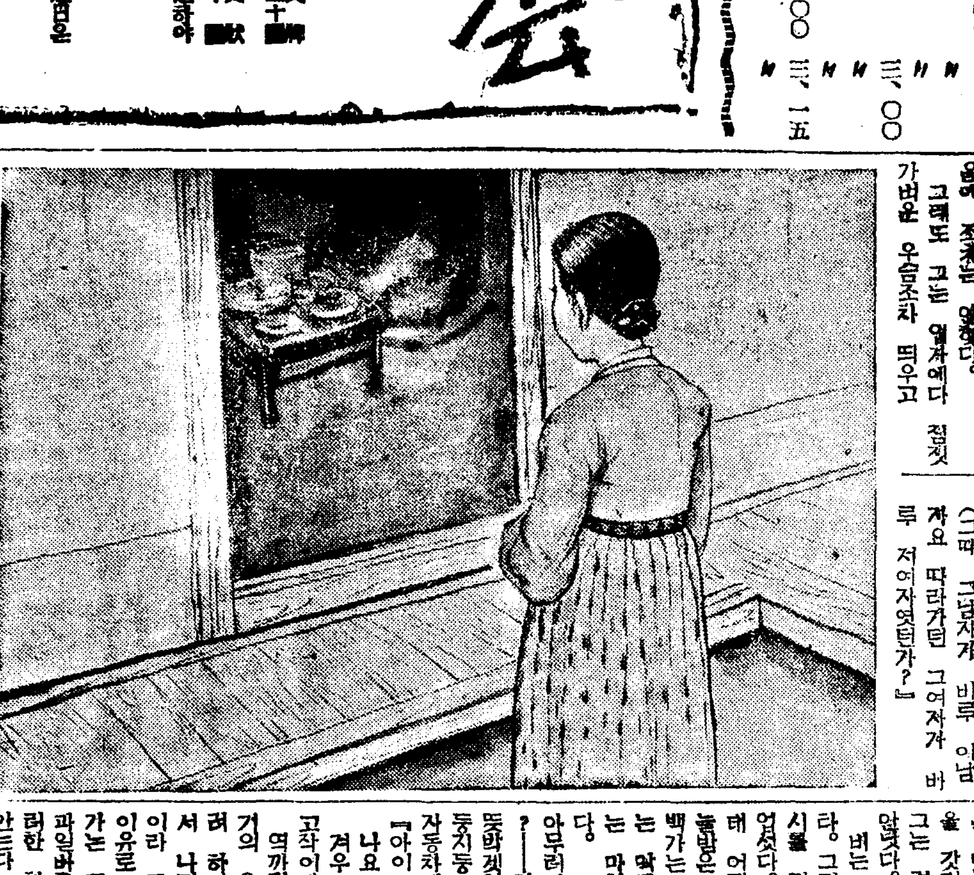
아무러기로서니 그러케야 가랴?——하고 생각하엿던 욱화는 뜻밧게일에 당황하엿다。그는 허둥지둥 대문깨까지 나와 마악 자동차에 오르는 함수를 보고

『아이 어떠케 그러케 떠나서 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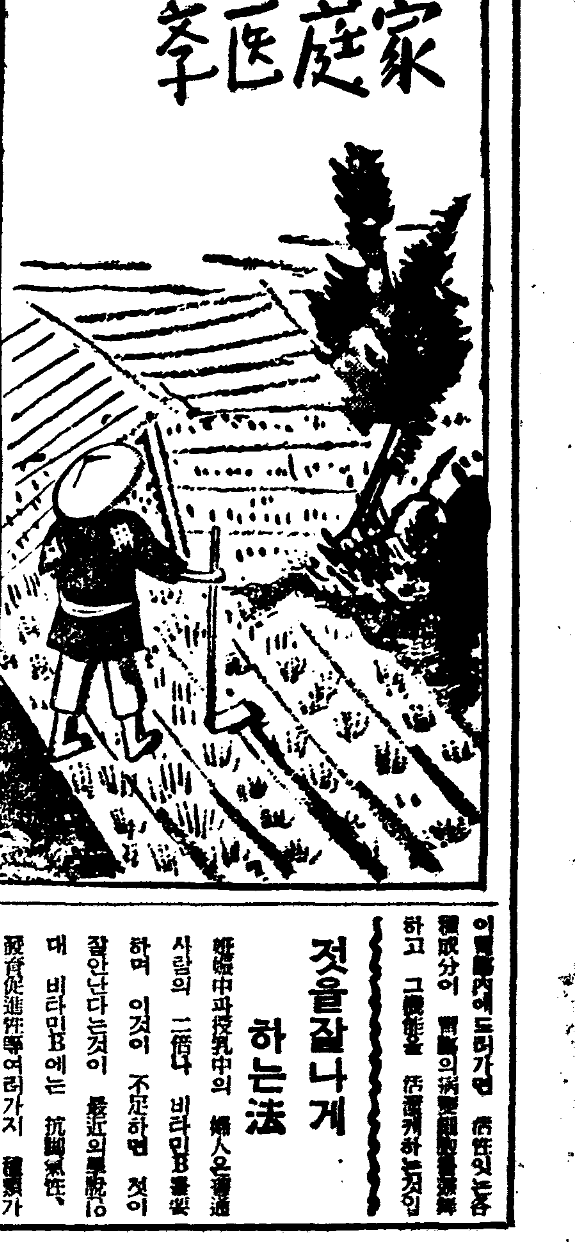
겨우 한마되 인사를 할것이 고작이다。

역까지 따라나온 백가는 자거의 우산을 함수에게 들려주려 하엿다。그러나 그는 차에서 나리면 곳 인력거를 불러 이라 도리어 짐만 될뿐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사양하엿다。백가는 또 언제 어데서 삿는지 파일바구미를 내여노핫다。아무러한 함수로도 그것마저 밧지 안는다는 수는 업섯다。

그러나 처음 찻는 최겻영의 집을 다 저녁때 비맛고 들어가기가 실혀 참말 온천서 그 밤을 지내기로 작정한 함수가 신천서 차를 나렷슬때 그의손에는 아침에 경성을 떠날때 고대로 가방하나 박게는 들려잇지 안헛다。주인업는 파일바구미는 차칸 선반우에 노힌채 아마 장연까지 갓게다。



家庭医学



梅雨期에알아둘 胃腸病者의攝生法

夏期의衰弱防止에備하야 食傷食慾不振을警戒하라

梅雨期에드러서 消化不良과食慾不振을이르키는것은胃腸이弱한사람에게흔히잇는데이것을放置해두면榮養의不足으로 抵抗力이減弱하고赤痢 지브스等의消化器

傳染病에걸리

던지 潛伏性結核等이잇스면 어것이 發病하게되는일이잇습니다 六月의炎暑時를 當하야夏瘦와여롬타는것等으로衰弱하는것도 大槪梅雨期의胃腸障碍食慾不振에 原因이되는것인故로 胃腸이弱한사람은 지금이것을保護强化하고 食慾減退 榮養低下를 防止하지 않으면안됩니다

食物로서 될수잇는대로 消化가잘되는新鮮한것을選擇할것은勿論이지마는 그러타고해서너무食物에對해서神經過敏이되야 制限食을하면 도로혀榮養素의不足에 빠지기쉬운故로 注意해야됩니다 特히梅雨期는濕氣가만코 細菌이 繁殖하기쉬우므로 그까닭에 食物中에예는 비타민B가減少하는일도엿고 健康人이라도곳잘

脚氣와食慾不振

을惹起하게되는故로 胃腸이나뿐사람은 더욱비타민B의攝取를힘써야됩니다 다음에藥劑로는從來 消化不良에 對해서는지아스타ー제其他의消化劑를주어서 消化作用을補助하고 食慾不振에對해서는苦味劑其他의 刺戟劑를써서機械的刺戟으로 食慾을喚起하도록하는等 藥의힘으로一時的어떠한機能의缺陷을 補充하는것이使用되고따라서 藥을中止하면前과마찬가지로 나뿌게되는傾向이만엇습니다 그것보다도 根本的療法으로서는 胃腸組織을튼튼히고처서衰弱한機能을

正常狀態로恢復

하는것이第一입니다 有名한『錠劑わかもと』는이意味로 胃腸衰弱者에 極히 適當한藥입니다 『錠劑わかもと』는稀有의 有益菌으로서 엇더저잇는 數種의酵菌에 아스페르기르스・오리ー제菌中의 더욱優秀한菌種을 選擇綜合하고 專賣特許의 方法에依하야製劑한것으로서 生物中菌一로豊富하다고하는 비타민B를 爲始하야 十數種의活性酵素와호르몬性物質 各種비타민 아미노酸等의 여러가지 貴重榮養素를 含有하고잇습니다 따라서 이것이胃腸內에드러가면 病性잇는各種成分이 胃腸의病要細胞를旺盛하고 그機能을 活潑케하는것입니다 이것을學問上『細胞原形質賦活作用』이라고해서 何等의副作用업시 胃腸의組織을强壯케하고 消化吸收를活潑케하므로 衰退한 食慾도旺盛케되고 榮養은增大하고 抵抗力도旺盛케되야 病菌의 侵入과夏期의 衰弱을防止하는効果가만습니다

젓을잘나게 하는法

姙娠中과授乳中의 婦人은普通사람의 二倍나 비타민B를必要하며 이것이 不足하면 젓이 잘안난다는것이 最近의學說이대 비타민B에는 抗脚氣性、發育促進性等여러가지 種類가 잇서서 어떤비타민劑라도 다 有効하다고는할수업고 비타민B以外에 픽라ーL이라는 要素가 업서서는 젓이안난다고 하는 說까지도잇습니다 『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면 젓이썩잘나는대 이것은各種의 비타민B를 網羅한우에픽라ーL이라는 要素도多分히 含有해잇는까닭입니다

神經衰弱의두가지型

靑年期의患者에는 體質性인것이만타

神經衰弱에는 大體두가지 型이잇습니다 하나는 假性神經衰弱이라고도 할만한것으로서 過度의 工夫를하던지 家庭의複雜한事情으로 心勞를하던지 또는 激烈한熱病과 過度한勞働과가튼

精神

또는身體의 過勞가 直接原因이되야 一時的으로 나타나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어쩌든 體質이튼튼한사람이면 原因이업서지면 恢復하는것인대 注意해야 될것은 또한가지型 即 體質性神經衰弱입니다

例를들면 十七八歲로부터二十四五歲의 靑年이 特別히他人에比해서 心身의 疲勞를 訴하는原因도 업스면서 頭痛과眩暈이잇다던가 學校에가도 雜念이 생겨서 授業에 精神이안간다던가 자리에누어도 여러가지생각이나서 安眠을妨害하고 食慾도 不振하고 體力도 衰弱하야 顏色이나뿌고 아주元氣도 업서젓다고하는等의 사람은 大槪體質性인것입니다

이러한분은 아해때부터 神經質이여서 그것이靑、少年期가되야 身體가發育旺盛케되여오면 各種의內臟器官의活動을 促進하는結果 神經系統은 적당過敏、衰弱해서 神經의疾患을 나타내는것입니다 即神經系統이 先天的으로

抵抗

力이 弱하다는 것이 神經衰弱의重要한 原因으로서 靑年의 神經衰弱의大多數는 이種類의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療法으로서도 一時的의苦痛을 免하기爲하야 催眠劑와 鎭定劑를濫用하는것은 藥劑는 오래繼續하면 習慣性이되는일이잇고 또여러가지中毒症狀을이르켜서 胃腸과 心臟、其他循環器에 障碍를이르키는危險이잇습니다

이것은間接的인것자태도 身體全體의强壯——即 胃腸을 活潑케해서、全身榮養을노피고 神經系統의抵抗力을 强케하는것이보다 合理的이며 確實한療法입니다 近間神經衰弱으로 辛苦하는분이 『錠劑わかもと』를服用해서 그中心이되여잇는 細胞賦活作用은 障碍를이르키는 組織細胞에 作用해서 이것을再生케하고 特히胃腸을强化해서

榮養

을充實하는 効果가 顯著한故로 全身抵抗力이强해지고 腦神經의活動도 直接强케됩니다。또한其他에도 腦神經의榮養이되고 機能을强케하는구루테민、레시틴、비타민B、D等도含有해잇는故로 此等成分이 綜合的으로作用하는結果 神經系統의 抵抗도强하고 여러가지障碍도 次第로除去하게되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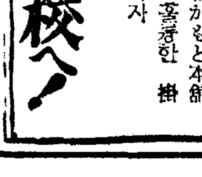
本劑의發賣元은 東京市芝公園大門內 わかもと本舗 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이고 藥價는廿五百錠分一圓六十錢 八十三日分五圓이라는一日服藥도얼마안되는 매우經濟的입니다

慢性胃腸病에 運動不足과過食으로

東京北品川 室田貞一

아해때에 特別히 胃腸으로 苦生한記憶은 업는대十八歲때부터 二十四五歲까지의 間에運動不足의生活과 젊은기운의過食으로 胃腸을害치고마럿습니다 여러가지 加療도하엿사오나 어쩐지그럴듯한效果가 업섯습니다 어떤사람이너무 胃腸藥을쓰면 習慣이되니 너무服用치안는것이 조타고말해주므로 習慣性이안되는 藥이업는가 고차자보앗는데 會社의 守衛가『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는習慣을붓고 아라보라고 대단히 勸하엿습니다 이것이 배가『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는動機가되엿습니다 服用의 効能書그대로 實行햇습니다 最初는 넘우 効果를認定할수가업섯스나 그러는동안 배가꾸루기 始作해서 食慾이 增進하고 每日食事를기다려지게되엿습니다 體重도 늘게되엿습니다 벌서 四年째나 愛用하고잇습니다 또 二三年來運動을 繼續해서 藥効를効果的으로 할려고 努力하고잇습니다 그런데 最近에는 胃腸에關해서는 醫師의손을 빌릴일이업습니다 나의 體驗으로본다면『錠劑わかもと』는 食慾을 增進하고 體重을增加해서 榮分을 吸收케하는 効果가잇는줄압니다

立派な掛図をポラクの学校へ!



집에서먹는『錠劑わかもと』의掛圖引換券을先生님께드려야지 그래서될신工夫가잘되도록 わかもと本舗에서 寄贈한 掛圖라자

知識階級論 【三】

現世에對한理解와愛着
휴마니즘과知性問題

白鐵

以上과가티 휴마니즘의行方을볼때에 今日의 휴마니즘이 調和로써 表現되는것은 그것이 靉靆되는 意味에서 科學化되고 知性化되는傾向이라고생각된다。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恒常말해온바와가티 휴마니즘이 **知**識人의 휴마니즘인限에서 當然한 歸結이라고 보여야할것이다。知識人이사는 不變한傳統이知性우에잇다면 今日은 그知性이 휴마니즘을 通하야 現世的인表象을 보히고잇는데不過하다 그점에서 나는 最近 知識人의問題로써 知性論이 正面으로 登場하는現象을 知性을究明하기위하야는 가장서투른方法이라고본다。웨그러냐하면 知性은 知識人의 問題로써 너무一般論이요 元則論이기때문이다 知性의近代的歷史에잇서서 知性은 한번도知性自身의 名目으로써 登場된일이 업다。그것은 時代에 따라서 人文主義 古典主義 啓蒙主義 그리고……唯物論 行動主義 그리고 今日에 와서는 新휴마니즘의外貌等을 비러서 나타날때에 비로서 現實的일수잇는것이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잇는것은 今日의휴마니즘이 知識人의 知性問題를 代表하고 登場하얏다고하면 當然히 그것은 知性의意味를 現世的으로 把握하고 現世的으로 살려가고 發展시켜가는곳에 中心問題가 잇슴을생각하고 잇는때문이다 또한그意味에서 휴마니즘을 **眞**實히理解하라면 저 今日의 知性이 現世에서 가지는內容과 意味를 積極的인것으로 把握하는것이必要할것이다。그러케 생각할때에 現世에잇서서 그知性은 단순한要素 例컨대 形而上學的인理知로써는보아서는 안된다。그것은 언제나 知識人의 生活을 全的으로 代表하는 가장 健全한生活性 生活力이라는 理解에 重大한意味를 두는 時代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普通 知識人이 知性的으로 산다는 意味는 복잡한 裏面을두고 생각할問題다。가령 知性을 단순한 要素로 본다고해도 첫째로 知性自體가 生의場面에서 非知性의矛盾업시는 自身을表現할수가업는것이다。知識人이 知性的으로 사는것을意識하는것은 人間은 本來 非知性的으로 사는動物임을 가장强하게 意識하는때의 表現일것이다 이것은 超人과 非凡人과의 距離를 一般大衆과 知識人사이에두고하는말이아니다。아무리 專門과職業이 高度에 達한 知識人도 그는 一面으로는 個性에 살고 **肉**體에살고 精神에사는 人間이다。그러기에 知識人이 知性에산다는 것은 그두가지中의 一을 버리고 一만을 偏重하는 것이 아니고 그두가지의要素를 가장 科學的으로 化合하고 統一하는生活의態度를 意味하는것이다。내가知性을 단순한 理智的인것으로 分析하는것에만 理解하려는 偏狹性에 反對하는것도 그런理由에서다。

그리고近世에 온世界가부르지저온文化의衰頹 精神의衰微 知性의敗北는 그敗北의 主體的原因이 知性에대해서 그一面만을偏重하게 理解하고 人間의生을偏依的으로 學問과 文字의보카부라리一를 蒐積하는 知識偏重우에두어진것이라고 생각된다。그意味에서 現代의 賢明한 **學**者들이 肉體와精神의 背離를 嘆하고世界의 知性이 調和를 求하는가운데는 當然히 知性에대한그偏畸된 誤解에 學問的인 反省을 含蓄한 現象이라고 밋는다。그러케 볼때에만 眞實한知性이 今日의 그裏面的現實 事象에대해서가 아니요 不均衡의 事象에대해서가 眞實한意味를 차즐수잇스며 그眞實한知性을 現世的으로 살리기위하야 正當한 휴마니즘의 調和精神을 理解할수잇는것이다。

그러데 이때에잇서 휴마니즘이나 知性의回求가 知識人의 積極的인思想으로써 人間이 調和를 求하는 精神이라는것은 이런時代에잇서서도 眞理에 對한情熱은 그대로 人間에게 發芽되면서잇다는 하나의現世에대한 肯定的인 意味를 表示하는것이아닐수업다

그리고 우리들이 業想하는그 眞理는完全한調和境이요 어떤 **偏**僻한 情熱에도 歪曲되지안는 人知의 極에서 이루워지는 一般性이요 普遍性이다

그러나 亦是 問題는 그휴마니즘 知性眞理에 對한 現實의 距離다 今日의理象的인 現實은 依然히 偏僻된 反知性反眞理의 場面이기때문이다 이距離아페서 우리知識人이 依然이 苦悶混亂하는 現象과矛盾된 生活이잇는것이다

그러면 이런問題를가지고 直接우리現實에 나가볼때에 現實따 知性의 關係는어떠케될것인가?

②

古典文學에서어든感想
그缺點과長處에關한再認識

李熙昇

筆者는 專攻上 또는 職業上關係로 꽤 여러 햇동안 우리의 古典을 주물러 보앗고 方今도 주물르고 잇는 中이다。그리하야 이에 對한 不準確性的 寸感도 업는바는 아니나、이러타고 **公開**할만한 아무 무엇도 갓지 못하엿다。어찌하엿든 實際로 研究랄가 考察이랄가 하여본중에 어든 感想을 몃가지 말하려한다。

우선 結論부터 먼저 말하겟다。『健實 正當한 新文學을 樹立하려면 우리 古典文學의 再吟味 再認識을 絶對條件으로 하지 안흐면 안되리라。』고 어찌하야 이와가튼 斷案을 내리는냐。文學에 對한 理論을 아무리 外國의 그것에서 배운다하드래도 公式에만 들어마추어서 生命잇는 새 文學이 産出되리라고는 생각할수업다 個人의 作品속에 그作者의 個性이 滲透되여 잇는것과 마찬가지로 朝鮮文學에는 朝鮮情操와 朝鮮的『이데아』가 確立되지 안호면 안될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表現하는 形式에도 朝鮮的『리뜸』가 흘러 잇서야 할것이다 요사이도 벌써 오래前부터이지만 朝鮮文學의 性格에 對하야 만히 **論議**되고 잇스나 아직이러타할 定說을 구경하기에 이르지 못하엿다 이性格이란 結局 朝鮮文學의 本質과 個性을 意味하는것이라 생각된다。그런데 이性格이란것이 決定되려면 現實的限際外에 또한 古典이주는 어떤 暗示를 배우지안흐면 안될것이다。그까닭은 이現實이란 結局 過去가남긴 무엇이기 때문이다。過去를 모르는現實에 對하야는 아무리하여도 正當한 認識이나 判斷을 내리기 어려울것이다 아무리 우리의 現實生活을 잘 解剖할수잇는 炯眼의 所有者라도 이現實까지 이르기에 構成된 必然的 모든條件을 抽出하야 吟味하지 안코는 그生活을 基調로하야 어떠한前作的成果를充分히 할수업슬것이다。醫師가 患者의 病源經過를調査하야가지고 治療에萬全을期하는것이나 微生物學者가 細菌의 成長過程을 觀察하야 그習性을 알아낸 다음에 그것을 **培養**할수잇는것이나다 마찬가지가 아닐까。이根本問題가 解決되지 안는限 文學의 性格云云은 隔靴搔癢의 안타까운감을 박게所得이 업슬것이다。그러면 古典文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는가。卽우리는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수잇는가。나는 推論의 順序로 그 缺陷과 長處를 먼저 들어 보겟다

(一) 缺陷이라 생각되는 點。
(1) 지나치는 修飾으로 誇張이 甚한일。
(2) 非寫實的이어서 浪漫主義에 기우러진일。
(3) 만히 勸善懲惡의 材料로 삼은일。
(4) 觀念的이여서 迫力이적은일

(二) 長處라고 보여지는點
(1) 리듬이 自然스럽고 부드러워서 이것만으로도 매우魅力을 느끼게하는일
(2) 事物을 類聚하는 버릇이 만허서 語彙를 **豊富**히 驅使한일
(3) 漠然하나마 朝鮮的『이데아』의主流가 흐르고잇는일

筆者의 좁은所見으로는 缺點이 長處보다 條項의 수효로 만흘망정 그重要性에 잇서서는 長處의 缺點을 相殺하고도 남음이 잇다고 생각된다。이것을 方向을 달리하야 바라보면 (一) 內容的檢討다。過去의 小說 歌謠 時調等이 아무리支那文學의 影響을바덧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 先人의 固有한 生活의 象徵이 힘잇게움지기고잇다。그들의 感情 傳統 感情 習俗이 커다란 主流가 되여가지고 우리의 心像에 或種의 映像을映起시킨다。直譯的 外來情緒가 우리의 肺腑에 힘잇는感銘을 심어 주기는容易히 期待할수 업는일이다。(二) 形式的吟味다。言語는 意味만을 傳하는것이 아니다。一種의 말할수업는 魅力을 지니고잇다。그것은 곳 魂이라고도 볼수잇는것이다。그러나 이魂이야말로 **語彙**의 不自然한 羅列에서는 차저지 안는것이라 생각한다。適材適所라는것은 藝術의 表現道具인 言語에도 그대로 適用하여야할말이다。

이 두가지 見地로 보아 現代人의 만흔 作品 속에서 우리는 커다란 失望을 느끼지 안흘수업다。이러한 作家들은 대개 그創作生活을 外國文學에서 出發하야 우리古典硏究에 손을 대지 안흔 탓이 아닐가한다。

鄕歌解疑 (一)

田蒙秀

烏乙反隱

請佛住世歌에
菩提叱菓音烏乙反隱
이란 句가 잇다

小倉博士는 이『烏乙反隱』을 『열니안』이라 읽엇으나(鄕歌及吏讀의研究 一一五頁) 誤讀임이 틀림업다고 생각한다

博士의 말대로 設使 『烏乙』이『열』이고『反隱』이『안』이라할지라도『烏乙反隱』은『열얀』이지 決코『열니안』은 아니다

萬一 이를『열니안』이라 읽을것이라 한다면『니』에 對한 字가 업지못할것이 아닌가

梁柱東氏는 또 이를 어떠케 읽엇는가。氏는 字音대로『오을븐』이라 읽을것이라하엿다 (鄕歌의解讀 特히願往生歌에就하여 二〇頁)

그러나 『오올븐』은 完全·圓滿의 義로『完』의 古訓『오올』、지금도 圓滿無缺을『오옷』이라는 外에 文獻例도 引用치 안엇고 何等 充分한 說明도 加하지 안엇다。果然 우리는 이와가튼 漠然한 抽象的인 說明에 滿足할수 잇슬가?

變人相見하사 오옴어신누네 (慕竹旨郎歌)
會希全物色時放命禧禎 物色오올옷와 時로노하논ㅎ며 귀남문지엿고 저브라노라 (杜詩諺解 一九의一〇)
性命全 목수물 오올와 이슈라 (同 一〇의一八)
殘人全性命 명사로 미모울 오올와 (同 一의三二)

새삼스리 여기에 더 說明을 加할것도업시『오올어신』은『오올』에 牟適去의 敬語『어신』을 附한 말로、『오올병신』의 轉이다 『오올와』『오올와』도、『솔바』『솔와』로 轉하엿슴과가티『오올』가 轉訛한 말이오、『울와는고』의『울와』도 이것으로、『오올와』를 주리어『올와』로 한것이니 本句의『烏乙反隱』은 正히 完全圓滿의 義인『오올븐』을 普寫한것이다 ……『明斤(볼근)』이『秋月』과『秋察(マ술)』을 同時에 形容하고 잇슴과 갓다。얼마나 表現이 洗鍊되엿스며 또 그手法이 巧妙한가。

逝往錄 (上) (一)

一僚友隨筆一

鄭芝溶

城안에 들어 갈만한일이 잇슴에도 집에 그대로 배기기가 무슨 幸福과 가티 여기여지는 日曜日一하로종일 비가 와도 조타고 하엿다。

보리스가을철답게 사삭한 아침에 하늘이 끄므레하긴 하나 구름이 포기기를 엷게하고 비스낫이 듯기는할지라도 그대로 맛고 나가는것이 족족하여 조홀것갓다。

오늘은 華麗聖堂에 아침 일곱시 미사를 대여갓다。돌아오는 길에는 제법 버人群이 보인다。아주 저러어울어진 綠陰에비추어 빗겨 좋으는 비人발이야말로 실실히 모주리 몰수가 잇다。깁실가티 透明하고 고흔 비가 푸른 바탕에 繡노히는듯하다。

비도 치근하게 구주레 오기가 실혀 조참히 잠간 밝고 가기가 願이라、소리가 잇다면 綠陰이 수런거리는것으로 박게 아니들린다。장끼 목쉰소리에 빼꼭이도 울엇다。

별로 아침생각이 나지안코 부엌연기 마당에 돌고 도마 뚝떡거리는 울안으로 들고십지 안타。내칭거롱에 잔등이 하나를 넘고십다。펴어린 속으로 뛰여다니면 밤자고난 빈 甁도 다시酒潔히 물들어질듯하다。

그러나 내게는 밀려나려 온잠이 잇다。늘어지게 자야 한숨이면 가흠잠이 남어잇다。

生涯에 悲哀가 잇다면 그러한것은 어떠케든지 處置하기에 困難한것도 아니겟스나 疲勞와 睡眠가튼것이야말로 마음대로 解決되지 못할것이 무어일까 몰으겟다。

다시 눕기전에 미리 집사람보고 단단히 부탁하여 두엇더니 한밤처럼 자고일도록 깨우지도 안흐던것이다。

캘린더는 土曜日 푸른페이지대로 걸려잇다。그대로 두기로소니 나의『日曜日』에 모두 支障이 잇슬리 업다

아까운 이른이야 가리워 둣직도 하지 아니한가。日曜日도 한나잘이 기울고보니 土曜가 日曜보다 흥청더 나흔날이 엿던것일지도 몰은다。

康津엇 永郎으로 부터편지가 왓다。그동안에 날세는찌뿌듯 개엿다。

……그이틀날 바로 집으로 왓스나 몸도 고단하고하여 이제사 두어자 적습니다。詩稿와 遺稿集내일것은 그날 山上에서 朴君의 春府丈께 잠간 엿주엇더니 조케여기시는것이엿고 詩碑는 素村압 알마즌 곳을보아두엇스나 經費가 不少할 모양이오며 何如間 遺稿集만은 原稿를 가을까지는整理하시도록 一步와 잘 相議하여 하시기바랍니다。… 여름에는 漢拏山까지 背囊지고 꼭 함께 同行하실줄 밋습니다……

그날 永登浦까지 靈柩車뒤를 따러가서 말한마디바꿀수업는 永別을 한후로 返廬에도 가보지안흔채 이내 보름이 너머다。그리자 永郎의 편지를 밧고보니 心思의 한구석 빈터를 채울수가 업다。

人事 겸사 홋홋히 이러나 가볼까 한것이 어찌지 오늘은 門안에 아니드러가기로 決心이나 하야 할듯이나 되는드시 衣冠을 재리고 나스기가 실혀진다。

사나이가 三十이 될석너머서 마일 戀愛를 한다할것이면 다시 새로운 幸福을 期待하기가 매우 어려울것이리라 친구를 이른것과 안해를 여인다는것을 한갈로 비길것은 아니로되 三十후生에 정든친구를 일코 보면 다시 새로운 友情의 기롱을 엇는다는것은 진정어려운 노릇에 롤닐것이다。

男女間의 戀情이란 意外에 速히 붕붓는것이요 常識을 벗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電光石火의 보람을내일수도 잇는 노릇이나 友情이란 그러케 용사리 의어질수야 잇스랴? 적어도 十年은 가진 曲折을 겪근후라야 서로 사랑한다기보다도 서로 尊敬할만 하테까지 갈수 잇는것이 아니랴。

友情이란 대체 어떠케이루어지는것인지 알수가 업다。그러나 友情이란 戀情도 아니요 同好者끼리 줄길수 잇는 趣味에서 밧듯이 오는것도 아니요 또는 同志라고 반듯이 親密가될수 잇는것도 아니요 서령 政見이 다툴지라도 극진한 벗이 될수 잇는듯이 아니엿던가。더군다나 氣質이나 利害로 友情이 설수업는것은 너무도 밝은 事實이다。

그리한것으로 밀우어 보면 친구는 안해와 恰似하다。夫婦愛와 友情이란 나이가 일러서 비롯하야 나팔이 든 뒤에야 두텁어지는것이 아닐까?

濟州島와 方言 (下)

第四班 濟州島行 —(五)—

方鍾鉉

다음으로 單語에 잇서서 標準語와 다른말을 使用하고잇는것을 여기에 들어보면 아래와갓다

뼝(骨)
풋 虐疾
정시 風水
고장 花
생이 雀
중이 鼠
저대 妓生
다람쥐·蝙蝠
독새기 鷄卵
황고지 虹
야개기 項
곰대산이 蒜

이밧게도 處女를『비바리』라고 恒用하야 도서히 그語源을 알수업는것도 잇스며『門』字의 古語인『오래』라는말과『城』字를『잣』으로 日用하는等 古語를 現用하는데 興味잇는바가 잇고 特히 鷄林類事에 記錄된 高麗時代言語로써 大日黑根 이라고하는말이 잇나니 이말을 說明해주는듯한方言이 여기서도 찻게된다 卽

감자 혹근 먹엇다

에서『혹근』이라는말에는 分明히이뜻을 가지고잇는것을 보게된다(平安道方言中에서도 혹근을 차즐수 잇는데가 잇다) 다음으로 간단간단한말을 드러보면 아래와 갓다

鄕土文化를차저서

데왕
오라사몹으쿠다
왓는지몹으겟습니다
이라경오라
이리로가저오너라
어느제 옵꺼꽝
언제 옵니까
떠나젠 하엿수다
떠나자고 햇읍니다
가리줍서
말合해줍시요

이『가리』라고하는 말은 우리는 普通으로는 쓰지안는다 孔子日 孟子日의 日字를 가라샤대 갈오대하고 解釋하나니 이처럼 글읽을때에만 使用하는 一種文體로 化해버린語이라고보겟다 그리하야 一般으로 日用되지안는말이지만 이濟州方言에서는 언제나쓰고잇는것을 보게된다

물구덕 어수싸

물구덕이라고하는것은 물겸어나르는 허벅을 담는竹製의籠이니 머리에이지안코늘 등에 지는만큼 이구덕은반드시 쓰는물로 되어잇서서 애기구덕을 使用하는것이 파숭하야 陸地와는 다른한異風習이라고보겟다 어수파라고할은 업습니까라고하는 말이니 이濟州方言에 잇서서는 有니 無니 하는말에는『업』에서『닙』字를 빼는것이 普通이고『이시』에서『이』字를 압부치는것이 으레이다 卽 全文의뜻은 물구덕 업습니까 라고하는뜻이다

우리가 方言을 調査할必要는 어듸에 잇서서는 다시너가 여기에 군소리되게 加할것조차업스나 이미 方言을 조사하는마당에 들어서는 누구나 이濟州方言을 調査하지안흘수업는것이다 우에서 말한바가 퍽 간단하고 게룩이 서지못햇스나 그러나 全文中에 濟州方言의 重要性을 包含시켜 잇는것만은 곳 알수잇슬까한다

漢詩募集

題 蓮花
押 春
限 六月十日

新人詩叢

가랑비

尹崑崗

축담마를 떨어가는
경칩 고향이 꺼리에
조롱이 물려오는 대낮一
들에
소리도 업시
가랑비 나린다。
쾨쾨한 그내음새에
목마른 가슴、저절로 취해、
부르트!뛰며 울어대고、
마디 마디 울긴 생각、
굴어봐도 굴어봐도
실꾸리마냥 끄티 업다。

(戊寅、暮春)

新刊紹介

◀[illegible]朝鮮 六月號 京城府鍾路三丁目四七의一 大同出版社 發行 振替京城一〇三二九番 定價廿錢
◀[illegible]朝鮮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外[illegible]面貞陵里三七八 [illegible]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廿錢
◀月刊野談 六月號 發行所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月刊野談社 振替京城二六三五二番 定價二十五錢 送料一錢
◀鑛業時代 六月號 發行所京城府光化門通一九八 朝鮮鑛業時代社 振替京城八九三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專賣の朝鮮 六月號 發行所京城府永樂町一丁目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 振替京城一三八六三番 定價三十五錢
◀慶北老會致會報 六月號發行所 大邱府南山町五 慶北老會致會報社 振替釜山八七八七番 定價一部五錢

朝鮮文學全集(第三回配本)
『隨筆紀行集』評

金煥泰

오늘 아침에 朝鮮文學全集中의『隨筆紀行集』을 바덧다。곳 읽고 評을 써보내란것이다。그러케 나는 요사이 閑暇한時間을 가지지못하엿다 感氣로머리가 千斤이나 무겁고 가끔오삭오삭 惡寒까지잇다 그래 페이지만 정정정정 넘겨보고는、아무말이나 몃매디 이것이 讀後感이오하고 번질하게 내어노흐者하게 冊을 아모대나펼처드니 金晉燮氏의『酒甁』이나왓다 나는 그題目에도 끌렷것스나 우리隨筆壇의 第一人者인 이分의 글을 그대로 건성드만 보고 넘기는 것이 너무나 疎忽한듯하야 이곳저곳 대강만주어읽기로하고 처음 몃줄을 눈으로 흘렷다。

그랫드니 흘러나려갈수록 내눈의 速力이 줄어저。乃終에는 한字한字를 讀讀히 주어읽지 안코는 눈이 압흐로 나가지못햇다。그다음에는 도氏의『蕃』따『蓄禮』에 눈이 못 박혓다 고만 氏의 綿密한 觀察과 精緻한 文章에 醉해서엿다。

이리하야 처음에『隨筆紀行集』에 맛을 부친 나는 十分間의 下手時間과 가깝게인 敎授時間을 不拘한 나의 時間을 라서、頭痛과 惡寒도 이저버리고、李光洙氏의 紀行文에서 그 雄壯한 想念에 귀를 기우렷고 安在鴻氏를 따라 鄕園 남역의 서늘한 물바람을 쐬엇고 李殷相氏의 고요한 情感에 눈을 감엇고、金東仁氏의 玄妖한 霧圍氣속에 醉하엿고 鄭寅燮氏를따러 멀리 埃及떼에가『피라미드』와『스핑크스』에 求景을 하엿고 李泰俊氏의 簡潔한 想과文章에머리를 숙엿고 梁柱東氏와 火爐를 끼고 안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엿고 李箱이 天才의 天折을 슬퍼하엿고 朴花城氏와 李善熙氏와 金慈惠氏의 女人다운 纖細하고 보드라운 感情을 엿보앗다 盧子泳氏의 艶麗한 感傷에 몸을 잠것고 沈熏氏의 艱難한 現實과 싸우던 안타가운 情景을 生覺하고는 울엇고 李源朝氏의 端雅한 敍情을 즐겻고 朴泰遠氏의 雅淡한 斷想을 玩賞하엿다

나는 이것은 오로지 隨筆과 紀行文이 特徵에서 起因하는것이아닐가한다。隨筆이란 筆者가 人生의 어떤事態에 直面할때 그에서울어나는 그때그때의 思想이라 感情을 記錄하여노흔것이요 紀行文이란 自然에 對할때 그에서 어든 그때그때의 感興과 情緒를 그려노흔 것이다。그럼으로 隨筆과 紀行文은 小說이나 戲曲가튼 文學의 딴 形式에 比해서 훨신 더 作者의內面生活의 直接的 表現이며 따라 그속에는 赤裸裸한 感情의流露가 잇고 體系化하지안흔純粹한 思想이잇다。이에 우리가 隨筆이나 紀行文을 읽을때 筆者와 우리를 武裝할 必要도 筆者의 思想과 感情을 警戒할 必要도 또 그에 同化하려고努力할 必要도 업는것이다。

그리하야 이곳에 우리가 隨筆이나 紀行文을 조금도 倦怠를 느끼지 안코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수가 잇스며 또그러면서도 그동안에 筆者의 알몽이 마음부터 直接 심수잇는 精神的體驗을 할수잇는 理由가잇다。

나는 나에게 그러케도 만흔 感興과 기쁨을준 이『隨筆紀行集』이 누구에게나 그만못지안흔 精神的饗宴을 베풀어줄것을 밋고 汀潮의 讀者諸子에게 그의 一讀을 勸奬하게에 躊躇치안는바이다(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一圓廿錢)

岐路 (四)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一

金廷漢 作
崔根培 畵

『거지? 홍홍호……』-온파는 기가 맥힌듯이 우스면서『애들아 난 거지가 아니란다。』

『문둥이도 안돼요!』

이건 아주 맨발생이의 호령이다。

온파는 마침내 수수꺼기나 하는드시 설명을 우스면서

『문둥이도 아니고。』

『그럼 뭐요一?』

『그만 사람이지。』

『사람도 안돼요!』

『너이들은?』

『우린 이동리 사람이자 뭥。』

『나두 이동리에 왓스니 이동리 사람이지 뭐야?』

『그래도 안돼요!』

『왜그래?』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라니?』

『그건 몰라요。나가요 어서!』

『홍홍호! 애들아 인제 작난말음랑 그만두고、』一온파는 비로소 정색을 하고서、

『오늘부터 나도 이동리에 살게 됏스니깐 자주 놀러들 와응? 그리고 저ー 거시키 구장님 댁에 가서、미안스럽지만 마당비짜루 하나 잡산만 빌려달란다구엿줍고 좀 어더다 줘응。』

『정말요?』

아이들은 그제야 무슨 얄믐이 난듯이 둥글한 눈으로 서로 돌레돌레 처다보더니 아픔다루며 우ー떠나갓다。

거무하에 그들은 비짜루를 한개만이아니라 어떤놈은 저의집것까지 둘러매고 다시 죽ー모혀들엇다。그리하야 그들은 시키지도 안흐것만 못은 마당을 말끔하게 쓸어수는더니 웬걸 순라잡기를 하느라고 되려 몬지를 더 일으켯다。

그러나 온파는 조금도 떨움하게 여기지안코 어지러운 집안을 대강 치워노코는 해가 한나절이 넘은 뒤에야 비로소 수막집으로 나갓다。

그날오후 두보와 그는 다시 그집으로 들어와서 졸딱 졸딱 오늘딱 살림을 차렷다。어정자비의 서투른 솜씨로써 창출히 소홀건다 도배를 한다 문을 발은다ー이리케 물야불야 장도갈을 치고나니 어느새 범써 날도 저물고 눈아괴 그만 어득어득하엿다。

그래도 은파는 꼭 제고집대로 둥몰도업는 부어캐서 그에 저녁밥까지 지엇다。

그래서 그들이 궁왓시가는듯도 미치갈아 입기전에 만식이가 차자왓다。

『야ー이런 난리중봐! 벌써 살림을 시작했군그래。』

가지고 방안을 한번 휘ー둘러보고는 미리 사가지고온 섣냥한통을 내노핫다。

『이런건 필하게 사왓서?』

두보가 식ー웃으니까、

『자네 살림이 볼가티 딱 어러니라구!』하며、그는 두보의 등을 툭ー첫다。

『볼가티?……흥! 고맙네。이리 안케이거온 밖이 도우지ーー』

『괜찬허。자네 떡 사교적이 됫군그래?』

『그래야만 살수가 잇잔나?』

『허지만 우리사이에선 그런건 빼버린다구。아즈머니 그러진허요。』

그는 온파의 동의를 구해가면、

『어떠케 살림조이 다됏서?』

『응、숫만은 그저 걸어 노핫지。그런데 저ー일은 어떠케됏서ー?』

두보에겐 그게 떡으나 궁금햇던것이다。

『일자리야 잇네만、뜻대루 안돼서 탈인걸……。』

『어째서?』

『수업의 말이、자네 기술을보지안코서는 그저 얼른 신장을 주기가 무엇하다나。그런데 저ー、자네 돌일에는 떼 자신이 잇지?』

『자신ー까지는 못가。허지만 축항일을 면달간 해왓스니、그저 얼마쯤 경험인 잇는셈이지』

『축항일이면 돌돈 만히 쌓밧겟군 그래?』

만식이가 파고들으니깐 두보는 고은嘗편으로

『쌋는 일은 별로히 안해봣서 그놈은 돌을 일이히 제손으로 들어올려야 되니깐 기술보다도 위선 소갓히 떡심이 잇서야 되거든』

『그럴테지』

만식의 대답에 다소 실망한듯한 구석이 잇는것을 눈치챈 두보는

『허지만 돌을 깨는것만은 아니게아니라 자신이 잇다면 잇네그려 그것은 작은돌보다 산때미가티 끔직한 놈이온록 더 조커던 그런게라야만 통쾌하기도 하고ー』

『역시 자네 성질 딸아서……』

그러나 아무튼 얼마동안은 위선 실지로 석수정이노릇을 좀 해야될 형편이니 그러케 알고 잇서』

『애그 그일을 어떠케 또 하겟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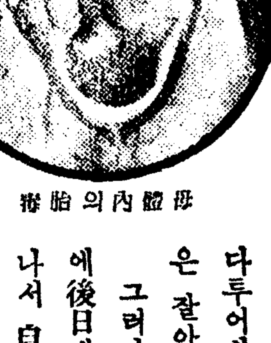
은파가 걱정스럽게 처다보니깐 두보는여러 말라는듯이

『그걸 못해 먹어도 사내대장부가……』

하며 허허 웃엇다

子孫의幸福을願하거든

愛兒한테의惡質遺傳은 病毒·酒毒이原因이요 瘀血을除去합시다



母體內의胎兒

不幸히 病毒에感染되거든 一刻을다투어서 治療하지안으면 안되는것은 잘아실줄로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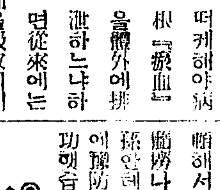
그러나 이治療가 不完全햇기때문에 後日에 여러가지 症狀이되어나타나서 自己自身의苦痛은 말할것도업거니와 그중에서도 罪업는愛妻를侵犯케해서早産、流産을하게하고多幸히出生한다하드래도 不具나 白痴의不幸을 결메워주지아니하면 안됩니다 이가티 病毒은 本人뿐만아니라 子孫한테까지 被害가 미처게하는것인고로 病毒의疑心이 엿는분은『瘀血』을 빼서 血液을 淸淨시켜 無毒이되도록 힘쓰는것이 사람으로서의 義務입니다

瘀血의所行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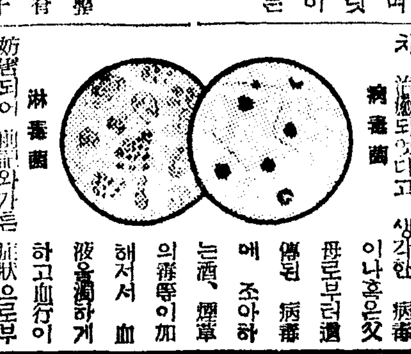
上氣、眩暈、耳鳴
肩臂痛、부름에辛苦하고
不眠、記憶、根氣의減退

病毒酒毒의 瘀血을除去하면 健康體가돼서조흔애를나어

前記는 모다 古醫學에서 말하는『瘀血』이 原因으로되어잇는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분이『瘀血』의 所有者냐고하면 놉머리가 무겁고 상기 眩暈 耳鳴이나 肩臂痛이잇고 思惟의부름에 辛苦하고 그우에 安眠을 못하며 記憶根氣의 減退가 바로 그럿습니다 그런데 病根『瘀血』이란 옛날부터『自怨과 痼氣업는사람은업다』라는 古諺도잇는만치 治癒되엿다고 생각한 病毒이나혹은父母로부터遺傳된 病毒에 조아하는酒、煙草의毒等이加해서 血液을 濁하게하고 血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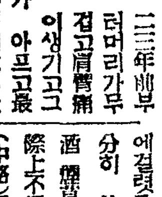
그러면어 調育게體外에 排泄하고血行을整理해서 辛苦받는症狀은勿論、脊髓癆나 腦梅毒의重症、혹은 子孫한테의 惡質遺傳까지도 未然에豫防하는 新療法의 御見에成功햇습니다



淋毒菌
病毒菌

『瘀血』에 辛苦하는분들을 救濟하려고 여러가지로 苦心研究한結果 現代醫藥學的立場에 依한 古方醫學의再檢討는 ……

上氣、眩暈과(病毒性) 關節의痛症이지금엔이기쁨



東京、關島、寺島(自轉車業) 山村留太郎

三年前부터 에걸렷든 經驗이잇고 그當時充分히 治療하엿섯는데 以後에 酒를먹고 特히 數年間은交際上不得已飮酒의 機會가만허서 마디마디가 아프고 最近에는 …… (中略)フルチル錠을 사먹기시작해서 …… 漸次頭重、耳鳴、關節의痛症이減少해젓습니다

前東京吉原病院勤務 小屋良明先生創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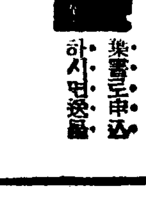
病毒과 體毒에

フルチル錠

主効 梅毒 淋病 ……

價 三十日分 …… (全國有名藥店에잇슴)

古醫學에서再檢討(四大新藥冊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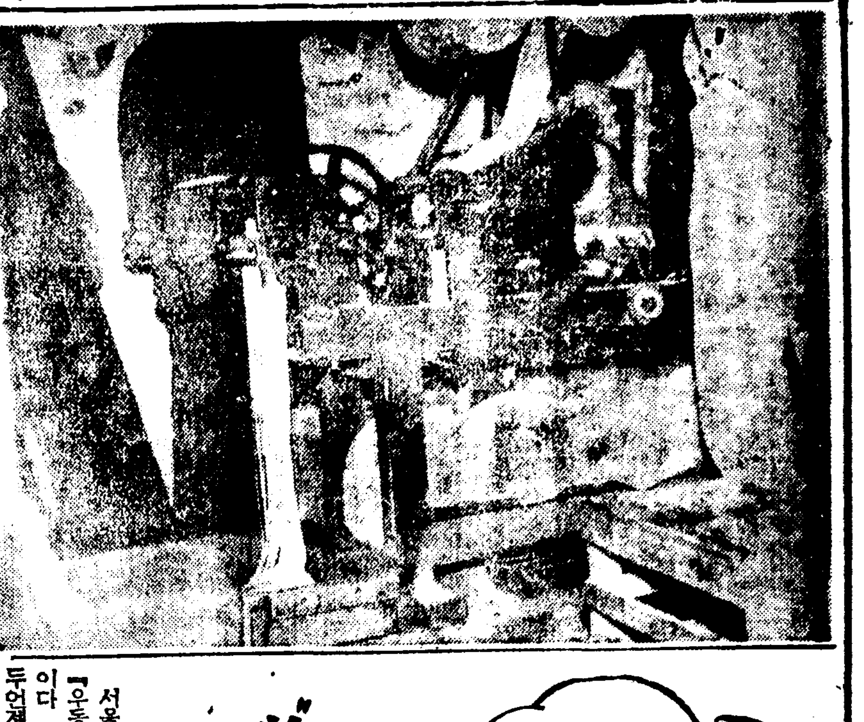


病毒排除 血液循環とふる血療法

無代進呈 葉書로申込하시면送呈

◆이러한症狀잇는분은꼭一讀하라
▽頭重、耳鳴、肩臂痛、手足痲痺잇는분(中風、神經痛)
▽動悸、息切、盜汗、冷汗으로고생하는분(心臟病잇는사람)
▽便秘로고부룸으로고생하며잠못자는사람(梅毒、淋病、神經衰弱)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ノ十
申込所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三五八四番·二六一六番 振替口座東京六五三〇八番



事變下의 우리小工業 ①

"物價는 騰貴코 需要는 減少만하니 걱정입니다"

尹風製麵所主人 談

서울長安에는 麵屋(국수집)마다 그것도 그럴것이 五錢만되면 『우동』집이 업는곳은 드물것 勞働生活者나 勞働者들은 點心이다 그리케만흔『우동』집이모 요기는 할수잇는 것이요 또其 두어제나 大混雜을 이루고잇다 獨特한맛은 一般의 食慾을도두 저연는禮도아니니다

그런데 그우동을 各其우동집마다 麵類을 사다가 만드는것이아니요 製麵所에서 그날그날 사다가 調味料만 加해서 販賣하고잇다한다 그래서 우동을만드는것을 보기爲하야 尹永福氏가 經營하고잇는 尹風製麵所를 長橋町으로 차젓다 製麵所工場이래야 事務室까지해서 二間半가량이되나 마나한 狹搾한곳에 다거기에는 [illegible] 가지고 찬 [illegible] 가잇슬뿐이요 [illegible] 主人에게 우동을말하니 『[illegible] 老兄이 더잘아실것입니다만은 天井모르고올라가는 物價에 말이아닙니다』라고 悲鳴을올리고엿다 [illegible]을 시작하기는 벌써九年前 昭和五年부터인데 그때만해도 麥粉一袋에二圓乃至二圓三十錢하든것이 지금은四圓五十錢乃至五圓이요 石炭價도 事變前과 比較하야 무러올랏슴에도不拘하고 二十錢分을 物價가 [illegible]되기前이나 今이나 亦是五十錢을밧고엿다한다 그뿐아니라 事變前에는 一日에平均麥粉十五袋를써왓는데 事變이發生하자 注文이만흔날은 九袋가량 쓰게되나 업는날은 大袋七袋쓰는날이 흔이잇다고한다

從業員은 配達하는사람까지合하면 六人인데 簡單한일이지만 分業的으로 멀가루에다 소금물을붓고 반죽해서 製麵하는 機[illegible] 三三次式처가지고 우동집에 配達하게된다 [illegible] 소금뿐이요 設備는 [illegible] 우동집이 만흐므로 [illegible]所도 市內에 大小數十所가잇서서 [illegible]이 極甚하다고한다 그러나 一次取引을 시작하고 信用잇게 配達만 迅速케하면 오랜期間을 [illegible]하야 變動이 적으나 오직 困難한것은 物價가昂騰되여 利益은 漸次 薄해가는 一方 賣上에 加稱으로 需要도 漸次減少되여간다고 悲鳴을 連發하고잇다 勿論 設備는 簡單하고 特別한 技術을 要하는것이 아니므로 누구나 着手할수잇는일이지만 지금까지 해온곳은 多少의 困難을 不顧하고라도 더繼續할수가잇스나 新規設備에는困難한點이 한둘이아니라고한다

(寫眞은尹風製麵所製麵光景)

(K記者訪問記)

自作農創設計畫 大體的으론成功

그러나自作農의再轉落도相當한數에到達

創設戶數도減少傾向

自作農創設實績은 昭和七年開始以來 昭和十一年度까지 計畫戶數 合計一萬一千五百七十三戶에對하야 一萬一千五百戶(七年二、〇八五戶 八年二、〇九五戶 九年二、五四〇戶 十年二、四七〇戶 十一年二、三八三戶)로 地價高騰에不拘코 豫定以上의 成績으로 一時悲觀視되든 朝鮮의 自作農創設은 農村振興運動과步調를마추어 內地實績에 比較하야 大體로 成功을이엇다 그리고 購入耕地面積은 土地昂騰의 關係로 當初 四千六百町步豫定에對하야 四千八十五町步 即八八%이엿스나 田은 千百五十町步에對하야 三千七百八十四町步 即三二九%로되엿다 그러나 그反面自作農의 小作의轉落은 勿論 其他創設된 自作農도 그經持에不堪하야 小作農에 再轉落하지안흘수업게되여 그數가 相當히 多數에達하야 依然今後의 重大課題로서 殘在하여잇고 또 地價高騰에 影響되여 第四年째의 十年度부터는 計畫戶數에對하야 創設實績戶數는 漸次減少의 傾向에잇서 아직 判明치못한 十二年度及十三年度上半期의 實績도 거의同一傾向을 밟고잇다고 想像되므로 今後의 自作農創設은 樂觀을容許치못한다

舒川稻作 害虫으로大憂慮

忠南舒川地方에는 오래동안 繼續한 旱魃로 因하야 苗畓에 害虫이 蔓延하야 稻作을 念慮케하는바가 적지안흐며 또一般畓木에는 누런버레가 한겨울더퍼 이붙어고잇스므로 이를속히驅除치안흐면 被害가 不少할것으로 當局者는 道農事試驗場과 協力하야 驅除策을 講究하는中이며 農民들도 自發的으로驅除에 沒頭하고잇다

棉病虫驅除藥 忠北道各郡에配付

【淸州】昨年忠北道內棉花에 病虫害의 被害가甚하엿든데對하야 被害額이 相當하엿섯든 經驗에鑑하야 道當局에서는 同病虫害의豫防의 萬全을 圖謀코저 播種을 終了케된最近 同驅除藥인 『게랑』(粉末)六萬七百二十二瓦 『硫化加里』一千五百十瓦 價格約千圓을 各郡에 配付하엿는데 同藥價는 郡農會에서 負擔하기로되고 一般耕作者에게는無料로配付하기로되엿다한다

緬羊飼育을 安東郡서奬勵

安東郡에서는 國策에順應하야 緬羊飼育奬勵에 拍車를加하고잇는데 安東邑에서飼養頭數는 農林學校六頭、刑務所七頭、西村氏十頭合計廿三頭이다 지난五月上旬에 本年最初의剪毛를行하야 五十八키로의羊毛를 어덧는데 其中의大部分은 昨年秋에 이미剪毛를行하엿스므로 其比例로보면 成績이優秀하야 今後 그前途가자못 囑望된다고한다

팔프增産圖謀코

宣川、寧邊에蘆草植栽計畫

朔州선팔프製造에着手

【新義州】平北朔州郡內道模範林에 工場을 設立中인美座知事獨創의 廢木利用簡易曹達『팔프』製造는豫定대로 來八日頃에操業을 開始하게될터이며 道에서는『팔프』簡易緩和策으로 蘆의栽培를 積極的奬勵하는同時簡易曹達『팔프』를 有効適切하게使用하야 農家의 副業奬勵를하려고 今年度부터 宣川所在의 林業苗圃에苗五萬本을 植栽코다시 寧邊을中心으로 大增産에進出할計畫이라한다

暴風繼續 麥作에被害甚大

【淸州】統計上으로는 일즉업스나 지난二十七日부터 二三日間 繼續된 暴風으로 말미아마 忠北道內의 麥作의 被害가 자못 甚大하다는바 今年은 지난겨울의 酷寒으로 凍死한것이 만흔데다 生育期에잇서 天氣不順等으로 前年에 比하야 三割가량의 減收를豫想하고잇는터에 今般다시 暴風의被害를밧게되여 一般農家에서는極히 憂慮하고잇다한다

江原道前海에 密集한鰮魚回遊

江原道沿岸前海의 鰮魚漁獲高는 五萬七千六百二十八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一萬四千百二十圓이 增加되엿다 [illegible]의 結果는 臨院津十浬前海로부터 注文津十浬點을 連結한 線內의水溫은 表面十三度內外 二十五米層은 七度乃至九度를 示하엿는데 前海에는 相當히 密集한鰮魚群이回遊하고잇는것이 判明되엿다

井邑金組座談會

【井邑】井邑金融組合에서 金融組合 創設二十一周年 記念事業으로서 井邑各界有志를 招請하야 經濟座談會를 開催한다함은 이미本報에 報導된바어니와 지난二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 井邑金融組合樓上에서 三上殖銀支店長 朴明奎道議員 八木商工會長 海北農校長 山本邑長 福田消防組頭 其他各新聞關係者多數參席을어더 金融組合의 方向을 論議하며 井邑產業開發에對한卓論이잇슨後 金融提供의 가

久留米絣原料 加工工場이設立

安東義城서積極奬勵

安東 義城兩郡에서 盛히奬勵하고잇는 久留米絣製織事業은 着着進行되고 잇는데 事變發勃後 絹絲配給統制關係로 內地久留米絣工聯에서 配給되든 絹絲는今年度에 드러서는 前年度의三四割程度에 不過하는狀態에 잇스므로 朝鮮農家의 副業으로서適當한것이라고奬勵하고잇다 이事業은 內地에 잇서서 原料가不足한結果 影響을 바더 久留米絣의 原料는 大不足을招來하야 事業을 縮少치안흘수업는 窮狀에陷入하야 지금까지의 副業奬勵擴張도 頓挫하게되므로 郡當局은 일직이 道當局과 其對策에關하야 여러가지 考究中이든바 朝鮮에서 產出되는 製品은 原料로부터 販賣까지 여기서한다는見地에서 드디여安東郡에서는 內地同樣의原料絲加工 工場을設立하고 絣絲의染色加工 製織 販賣에이르기까지 一切이를行하게되여 內地로부터技術者를招聘하야 技術指導에 當케하엿는데 安東布組合은 이事業을後援하며 郡當局에서 이를監督하게되엿다 어가든 小規模의 工場이라도設置를보게된것은 (畓益將來農村副業에 拍車를加하는것으로 자못 注目된다

仁川化學肥料會社 設置計畫不拋棄

認可되는대로곳着手

【仁川】仁川에서 計畫中인 日東肥料의 過燐酸工場은 原料關係로拋棄되엿다는 說이 傳하던바 確聞한바에 依하면 右는 全然虛傳으로 同社는 右計畫을 遂行케 爲하야 目下資本金二百萬圓의 獨立會社로서 朝鮮化學肥料會社를 創立計畫中으로 當初의 過燐酸十萬噸計畫을 五萬噸으로變更하야 認可申請中인데 許可가 잇는대로 着工할 豫定인바 原料鑛石은 日東肥料에서 輸入한것을 仁川에 運送할 方針이다

忠北松毛被害 八萬一千餘헥구터

【淸州】忠北林野를侵襲하는 山賊松虫의 被害는 逐年增加하는 형편으로 道當局에서는 道費補助等으로 撲滅에 腐心하고잇는터이나 所期의 成果를엇지못하고잇다한다 道當局의 調査에依한 四月末現在 道內被害面積을보면 激甚地 一萬一千三百九『헥구탈』普通地二萬七千六百二十『헥구탈』輕微地四萬二千二十『헥구탈』이라는바 前年同期에 比하면六千八百二十四『헥구탈』의 增加를 보이고잇는데 當局에서는 今年二萬八千百八『헥구탈』에道費로써 驅除費를補助하기로 되엿다는대 被害面積을 郡別로 적으면 다음과갓다

郡別	激甚地	普通地	輕微地
淸州	三、一八〇	五、四六五	二、九四〇
報恩	五四三	一、五〇五	三、五四〇
沃川	一、三三〇	三、四四〇	五、五二四
永同	三、八〇〇	三、〇六〇	三、一五四
鎭川	三〇五	四三一	一、二〇〇
槐山	一二〇	一、八三〇	四、一三〇
陰城	二二五	一、二五四	二、三五九
忠州	三、二二五	七、一〇六	五、七〇〇
堤川	二六	八五四	一、四九九
丹陽	一、四〇五	三、七五四	三、六六八
計	一一、三〇九	二七、六二〇	四二、〇二〇
合計	八〇、九四九	前年	七四、一二五

纖維資源確保코저 技術者各地에派遣

爲先咸北道로부터始作

纖近纖維工業의 勃興에伴하야 益益其資材의 需要가 增加하므로 將來에잇서서 木材팔프資源의 供給을 充分하기爲하야 原料資材를 增殖計畫下에 落葉松의 種子採取를 一般農山家에 奬勵하엿스나 나무에올나갈수업스므로 가지를꺽거나 심지어나무全體를 伐木하는 弊端이 적지안흐므로 總督府林業課에서는 內地로부터 營林專門技術者 二人을 招聘하야 全朝鮮各營林署區內로 巡廻하면서 一般에게 採木技術을 傳授케하기爲하야 昨二日에 技術者二人이咸鏡北道로 向하엿다한다

[illegible](紙芝居)와 설연이잇스 盛況을 이루엇다

仔豚貸付해 有蓄農家에奬勵

【仁川】仁川府勸業係에서는 管內畜家에 有畜農業奬勵를 目的으로 昨年에 [illegible] 五十二頭를 購入하야 農家一戶에 一頭式配付하여잇는데 今年에다시 [illegible] 購入하야 第一次로 二十三頭를 配付하고 第二次로 二十七頭가 配付게되엿다 그런데 府內畜家九百餘戶에 對해서 全戶에 一頭式 飼育하도록 有畜農業의 實績을올리려고 努力中이라한다

特種鑛山의 許可鑛區數

世界의勝地金剛山도 保勝區域은除外치안는다는 條件附下에 同山에 鑛區를 年四百萬乃至五百萬의『탕구스텐』鑛과 水鉛鑛을供給하야 國策線上에 進出하야 礦物資源確保에 大役을하고잇는데 其後同山의 特種鑛物開發諸工作은 着着進捗되여 同山保勝區域關係水鉛『탕구스텐』鑛許可鑛區數도 日本高周波重工業會社의 七十八萬四千三百坪을 버네바게업다

[illegible] 本年一月以降의 金剛山保勝區域에서의 許可『탕구스텐』[illegible]

◆[illegible] 水鉛、탕구스텐 一、〇〇〇、〇〇〇 橋本武

◆[illegible] 탕구스텐 九〇一、〇〇〇 南田昇

◆[illegible] 탕구스텐 [illegible]〇、〇〇〇 李東植

◆內金剛面 水鉛、탕구스텐 七八四、三〇〇 日本高周波

◆[illegible] 탕구스텐 四、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水鉛、탕구스텐 六四七、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탕구스텐 九、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水鉛、탕구스텐 一一八、〇〇〇 李[illegible]

"淸津製鐵所 建設促進할決意잇다"

澁澤日鐵常務 談

【淸津】日鐵常務取締役澁澤正治氏는 戶根淸津製鐵所事務所長을 帶同하고 茂山鐵鑛을 視察한後 來淸一泊하고 다시雄基羅津方面을 視察코저 [illegible] 十一日淸津에서 如左히 製鐵所建設에對한 談話를 試하엿다

北鮮時代라더니 처음보는눈에는 諸般施設과新興氣分에 놀내바게업다 [illegible]『北鮮을보고는 朝鮮을 알지마라』는말을들엇더니 果然 그와같음을 드러맛는다 淸津工場은 一日이라도 速히着工하야 竣功시킬決意를 가젓스므로 今後工事에 萬全을期하야 促進시킬作定이다 期於平生社長에게도 말하야 北鮮과 淸津의活氣를 觀察하도록 勵하겟다云云

水難漁航積極救濟

漁航損害年平均四十三萬圓!

漁船과漁具는 漁業家에잇서서 가장重要한財產이요 또財產釀成의열쇠임은 두말할必要가업다 그런데 海難은 全然豫測할수업는것으로 最近十個年間의沈沒船其他의 事故에依한 漁船의損害는 一個年平均四十三萬圓이라는 巨額에達한다 此等漁船에對하야 從來에도 救濟方法을 講究하지안흔배는아니나 極히 消極的이여서 目的의貫徹을 期할수가 업섯스므로 其完璧을期키爲하야 本年度부터 朝鮮水產會와 各道水產會에서 水難漁船救濟事業에積極的으로進出키로되엿다

漁船四萬八千隻 船價二千八百萬圓

◇……一隻平均船價四百二十五圓

海難救濟의 根本이될所屬의漁船調查를 開始한結果 一月一日現在漁船數는 四萬八千六百四十七隻으로 이船價는 二千八百二十三萬三千九十九圓인데 一隻平均船價는 四百二十五圓이된다 이것을各道別로보면如左하다

道別	隻數	船價
咸北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京畿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忠北棉播種面積 一萬三千五百餘町步

【淸州】忠北道當局에서는 今年 共販一千萬斤 生產高一千六百萬斤을 目標로計畫을樹立하야 棉花栽培의 積極奬勵를하게되엿는데 同棉花의 播種을 四月下旬頃부터 始作하야 去五月廿日頃 全部完了하엿는데 同播種面積을 道農務課에서 調査한바에依하면 計畫一萬五千町步에對하야 播種面積은 一萬三千五百五町步로서 前年度에比하면 三百廿五町步의 增加이며 同耕作人員은 八萬三千二百卅八名으로 前年에比하면 五千四百三名의 增加인데 그播種面積에잇서 前年보다 約二割五分의 增加를 보이고이다한다

購買券制度 ②

流通過程에서 需給平衡을圖함이目的

購買券制度實績

購買券制度는 配給統制의極致로 需給調和의典型的인것이다 그러나 平時에比하야 供給이減少하고 또는需要가激增하야 需給의均衡이깨여진狀態에서 需給의 圓滑을圖하는것으로 需給의根本的調整策은아니다 따라서購買券制를採用하엿다고하더래도 곳從來와가튼 數量이入手되는것은아니다 購買券制度는 攻縮的立場에서잇는者에게는 非常히便利하야充分히 監督할수잇스나 反面 非常히複雜하다 綿絲의購買券制를實行하야 綿工聯에서는 多人數를增員하며 石油의購買券制實行하야 到處에『갓솔린』巡査가出現하는等 이購買券制度를 實行함에는 非常히만흔人員을 要케된다 다음에 各統制別로購買券制의實績을보기로하자

(고무)

製造業者의數는 全國에서約二千 輸入商는廿四、五 問屋은五十戶이다 그리고輸入生고무의六割이 輸入商으로부터 直接製造業者의손으로건너가고 四割이問屋經由이다 어가리六割이 問屋의『오모와구』的商取引을 經由하지안키때문에 고무의 購買券制는 期限로行하고 잇고 最高價格을 招越한 相對賣買는 그림자를 감초아버렷다 그러나軍需用輸出商用에 優先的으로配給하므로 內地消費原料는 小規模의 加工業者의 손에는 거의드러오지안는다

即 고무의 一個月輸入量三千五百噸中 軍需用으로써 一千二百噸 輸出特別配當量으로써 百噸이 除去되나머지 一千八百噸이 고무商品製造工場으로 割付되는것인데 이것은 全工場의配當定量의 三分의一이다 輸出品製造工場에는 追加配當이 絕對로 하지안는다 即國內品製造工場은 購買券의 三分의一바게 配當되지안는다 購買券制의 出現前에는 相對賣買로 돈만잇스면 原料는 入手할수잇고 가령原料가 高價이더래도 製品高로 카바-할수잇섯스나 購買制가된여서부터는 이것이 全然不可能하게되엿다 그러나 大工場에서는 軍需用、輸出品을 製造하고 잇스므로 購買券制에依하야 操業은 確實化하고 利潤은 確保하게되엿다 또 購買券은『프레미암』附로 轉轉하고잇는모양이다

(綿絲)

購買券制의 採用과同時에 加工業者側은 國內向原料綿絲의 手當이 困難하게되엿다 또 依然코 綿絲의 [illegible] 實態配當過剩部分의 陰蔽等에依하야 暗取引이 平然히 行하고잇는것갓고 또購買券이 잇다하더래도 綿絲를入手할수업는 苦憫이잇다

綿業界는 綿花輸入商 紡績業者 綿絲元賣商 綿絲問屋、機業家 輸出商에 이르는사이에 機構가 非常히 複雜하고 또古來 綿業界는『오모와구』取引이 盛한곳으로 一片의 購買券이 圓單하게 實行될것이 아니고 또 番手의複雜性때문에 品種別購買券制도 實行할수 업는것이다 이部門에서도 大機業家는 融通이 容易하나 小機業家는 힘의 不足으로 原料難에 陷하고잇다 中小機業家의 原料難緩和를 爲한 綿絲共同購入案은 中間商人인 綿絲問屋을 排除하게되는것이므로 이方面으로부터의 猛烈한反對에 依하야 全혀 停頓된狀態에 잇다

(石油)

購買券制度로되여 먼저 血眼이 된者는 택시業者로써 種種의逃避方策을 講究하엿다 其二三을 示한다면 當局에의 申請에 잇서서 自家用又는 큰自動車商會主들이 中古自動車를 購入하야 이에依한『까솔린』券의 交付를 밧는것이다 또 家庭用으로써 一『리틀』以下는 購買券업시살수잇스므로 諸處의『스탠드』로부터 買集한다는 細密한 案이다 그리고도 購買券의『푸레미암』附의 轉賣가 盛히行하는모양이다 또農村團體 地方鑛山과中小工業家等에서는 劃一的配給때문에 입출할수가업서 商工當局에 其苦情을 陳情하고잇다 何如튼 適去에 잇서서 統計資料가缺乏하므로 (公平한配當은 困難하다 一方石油販賣業者도 商工業當局의 指定)價格으로 抑制하고잇고 取引量은 激減하므로 收益은著減하고잇다

獨逸需給調整과 商品管理所

日本의 購買券制度도 다르만흔統制經濟와가티 나치스統制經濟의 日本版이다 獨逸에서는 一九三四年 九月의所謂『新計畫』의 實施에앞서 同年三月『原料及米製品의取引에關한法律』을制定하고 主要原料에對한廿七의商品管理所를設置하엿다 廿七의商品은 (一) 穀物飼料其他의 農產品 (二) 家畜及家畜生產物 (三)乳酪品及油脂 (四)肉 (五)木材 (六)園藝生產物 (七)羊毛及其他獸毛 (八)棉花 (九)絹絲及絹布 (十)絹、人絹及人造羊毛 (十一)衣類及同類似品 (十二)木皮纖維 (十三)貴金屬 (十四)卑金屬 (十五)鐵鋼 (十六)工業油脂 (十七)皮革 (十八)고무及 아스베스트 (十九)顏料 (廿)鑛油 (廿一)化學 (廿二)煙草 (廿三)石炭及鹽 (廿四)毛皮 (廿五)紙 (廿六)工業技術品 (廿七)雜品

이 商品管理所의 機能은 첫재로 輸入統制를 主眼으로 하고잇는것이나 實際은 原料及廢物의 調達配給貯藏販賣 消費等의 統制에重點을 두고잇스므로 原料의 配給統制에 잇서서 購買券制度를 採用한것이다 即商品管理所는 需要의正否를 檢查하고 需要充足券을 下付한다 이에는 消費者名 購買額、購買價格其他 參考事項을 記入하고 其引換에依하야서만配給을밧는다 此券은同種商品配給의 各段階를巡廻하다가 結局管理所로返付하는것이다 現在日本의 購買券制度는 四商品에 不過하나 不適非鐵金屬에도 適用할모양이다

적어도 商工當局이 選擇的消費節約의 對象으로써 指摘하는 物品 即前記四商品外에羊毛 白金 銅 眞鍮及其製品『알미니움』及 其製品 皮革及 其製品 木材及其製品 紙及其製品等에미칠것이다 그리고 이購買券制는 業者의 自主的措置에 依하는데서부터 漸次 法的購買制로 나아가는傾向이잇다 當局은 이統制强化實行함에는法的購買制度가 [illegible]

西瓜接合栽培 田地에連作可能

甘藷로早期栽培成功

鳥取縣外江村外江甘藷苗出荷組合長 柏木鎰氏는 二三年前부터 中西伯郡農會技師의 指導下에 西瓜의 接合栽培와 甘藷의 早期栽培를 研究中이든바 最近이에 成功하야 園藝界에 一大센세이순을 捲起하엿다

◇

西瓜 의 接合栽培는 四月下旬까지에 溫床에서 育成한 瓢의苗木에 西瓜의넝쿨을 接合하야 本田에 移植하는것으로 [illegible] 田地應用이다 이接合栽培를 行한境遇에는 從來絕對로 連作할수업다고하던 田地連作이 可能하야 同一田地에 數年間連作한 結果 비로소 實證되여 普通栽培에 比較하야 五割이나 增收되고 또 早期出荷도 可能하야 耕地狹窄한 園藝地帶에最適의栽培法이라고하야注目되고잇다

◇

甘藷 의早期栽培는 柏木氏의 研究는 [illegible] 苗를 本田에 移植하엿는데 이栽培法에 依하면 普通栽培하는니보다 四個月빠르게 六月下旬頃에 搬出할수잇서 昨年度의가튼해는 一貫에 一圓三十錢이란 法外의 高價로 賣却한일이 잇다 이方法은 苗를 溫床栽培하야서 全國에 자랑할 特異的 栽培이라고한다

濶葉樹保護의 三個年計畫

全南一定地區決定

[illegible] 山岳地帶에잇는 濶木의 濶葉樹林은 朝鮮의 傳統的慣習이라 採食은 濶葉의 山火와 病害虫과共히 林業界의 三大禍이 되엿스나 此로 食用하는 被害는 即葉身은 葉綠素에 依한澱粉製造의 營養作用을 하는同時에 根部로부터 吸收하는 水分蒸散의 生理役割을 演하는것이므로 植物에 致命傷을주어 枯死케하는것이다 그래서 全羅南道에서는 森林形成에 人智를加하면 此等侵害도 未然에防止할수잇는 原案이 着着 一部에서 好成績을 내고잇스므로 昭和十年까지 五個年計畫을 다시更新하야 半島의尖端을 示키爲하야 道山林課에서는 障壁을지고 所轄部島嶼에 向하야 左記의 基礎資料를 探査케하엿다

◆第一次濶葉樹撫育三個年計畫要綱

一、濶葉樹撫育三個年計畫을 樹立하려한다

二、森林諸病虫害及 伐採利用의 諸點을考慮하야 濶葉樹의殘林을調査하고 針濶混淆林으로하고 中林作業을取하려한다

◆調查事項

一、濶葉樹林을 豫生케하야 今後五個年計畫으로 成林의城에達할수잇다고생각하는面及其面積

二、發生한濶葉樹의主要한 樹種 樹齡及 成長狀況

三、濶葉樹撫育을爲하야 實施할 上木(主로서松類)의 伐採程度는 現在發生한 濶葉樹의樹種 樹齡又는 生長狀況과 對比하야 如何한程度又는 方法으로 實施할것인가

四、上木伐採에依하야 稚樹와共히 發生하는濶葉樹를 撫育키爲하야 昭和十年부터 實施하여온 濶葉樹水平帶撫育伐採의實績如何

五、撫育伐採의適期如何 (가)上木伐採 (나)養生稚樹整理及下草刈取

昨年菜蔬生產高

三百二十九萬七百餘圓

比前年五分六厘增

昭和十二年의 菜蔬生產高를調查하면 作付反別에잇서서는 蘿蔔六萬二千九百三町五反 白菜四萬九千二百二十六町六反 甘藍一千三十二町四反 葱三千九百八十七町九反 茄子二千六百九十七町九反 胡瓜八千五百四十九町六反 南瓜四千六百八十五町九反 甜瓜一萬三千六十六町 西瓜二千九百五十一町六反 大蒜九千百四十三町三反 蕃椒一萬六千四百四十五町九反 芹一千九十一町八反 [illegible]

[illegible]

價格에잇서서는 [illegible] 南瓜는 二萬一千八百圓(一分七厘)의減少를示하야 合計二百二十九萬七百六十二圓(五分六厘)의增加를 示하엿다

그런데 作付面積을 地方別로 보면 京畿道가第一位로 二萬六千百五十二町步餘요 第二位는江原道로 一萬八千六百七十六町步餘요 第三位는 平北道로 一萬七千七百十七町步요 第四位는黃海道로 一萬七千六百九十八町步餘이며 그다음은 咸南、平南、全南、慶北、忠南、慶南、全北、咸北、忠北의順序이다

그리고 다음收穫高를보면 京畿道가 第一位를占하야 七千四百七十三萬二千餘貫이오 第二位는 平北으로 四千九十四萬五千餘貫이오 第三位는 平南으로 三千八百三十一萬餘貫、第四位는 忠南으로 三千五百二十五萬九千餘貫이오 다음은 黃海、江原、全南、咸南、慶南、全北、慶北、咸北、忠北의順序이다

殺菌力が强く効めが早い・滲透療法の劑

皮膚 チヤージー

버짐、무좀、땀띠、음낭습진、서버짐、구두에다쳐서 가려운皮膚病의良藥

廿錢、卅錢 五十錢、一圓 奈身用 五圓

全國有名藥局、店에 1는藥品部에잇슴

松竹キネマ 明治座
6月6日ヨリ12日マデ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1·15…11·41 3·04…3·30 7·00…7·26
人の氣も知らないで 11·43…12·41 3·33…4·31 7·29…8·27
極彩色短篇映畫 12·44…1·12 4·34…5·02 8·30…8·58
ワーナー大學祭り 1·15…2·40 5·05…6·30 9·01…10·36
料金 50錢均一 [illegible]
次週 [illegible] ワーナー
[illegible] 二人のメロデー 京都、花嫁月夜

第一劇場
六月二日부터四日間大公開 大衆料金 [illegible]
ごん底 [illegible]
深海의野獸 [illegible]
君にささぐ花束 [illegible]

東洋劇場
劇團靑春座公演 六月四日밤부터
上演藝題 李瑞求作 『사나희사랑』三幕
南宮春作 『流行性感冒』一幕二場
母性悲劇 『어머니의힘』三幕五場
首陽山人作 『아우의幸福』一幕

日活 黃金座
六月一日ヨリ五日マデ
京日ニュース 1·40 6·20
猫傳 1·50 6·30
朝日ニュース 11·00 3·15 7·55
戰士の道 11·10 3·25 8·05
パ社ニュース 12·13 4·28 9·08
ビシグゲーム 12·23 4·38 9·18

優美館
間諜最後の日
新柳櫻
韋駄天街道

中央館
讀賣ニユース
魔人幽靈塔
空中劇場
元祿からくり帖

公有水面埋築事業 免許料의徵收說

利權化防止와港灣修築費捻出策으로

咸南道서愼重考慮中

【咸南支社發】연안수산업의 급격한발달로서 해변은 촌토(寸土)라도 그이용가치가 극히큰상태에잇는 함남도에서는 연안각지에서 공유수면(公有水面)의매축을 순전히 이권적으로 그운동에대하야서는 가진암약을하야 그페해가 적지안흔상태라고한다 본래 이공유수면의 매축면허는 토지개량을 조장한다는 의미로서 그면허료도 징수하지안코잇든바 근년팽창히 이러나는연안해면의매축은 이원속적취지에는 반하야 순전히개인영리를 목적으로하고잇다하야 이런개인영리사업에 면허료를 밧지안는것은 불합리한것이라고하야 해면매축에는 상당한면허료를 징수하는것이 올타는문제가 도토목과에서 대두되고잇다고하는데 도당국에서도 이중대한문제에대하야 두가지방면으로 즉이권획득(利權獲得)의방지 항만수축비(港灣修築費)의염출이라는 견지로서이안에대하야 신중히고려하고잇다 별항 해면매축에대하야서 면허료를 징수한다는것은 아직도 도토목과의일개의견으로 그성립여하는 아직도 문제중에잇스나 이것은 전조선적으로 연안어업자에게 일대센세슌을이르킬것은 어김업는 중대문제다

三年間埋築이 九八件에廿萬坪

함남도에서 파거 삼개년동안에 매축된면적은 구십팔건에이십이만팔천사백오십평의 만흔면적으로 그증수료금도 막대한액에 올으게될것이며 도당국의재원에도큰 영향을 하게될것이다

獸皮暴騰의反響

平壤에서新犯罪續出

牛肉은十錢、豚肉은五錢式引下

【平南支社發】전시체제하에 증생의가죽갑이 오르기때문에 생긴세가지의희제

개도적卅七件

평양부인흥리(仁興里)삼십칠번지 전과사범최승목(崔升穆)이라는노동자는 요지음 개가죽갑시 올나 고가로매매되는데 착안하고 지난사월팔일경부터 시내로 도라다니며 소기름으로서 개를 꾀여다가 서성리(西城里)삼십번지구매조합(狗賣組合)사용인 김승학(金承學)에게다 이상원에팔어먹다가 일일대동서에 검거되엿는데 이미자백한것만 부내박구리(擴九里)리영식(李永植)씨의 쎄파-드(시가륙십여원)이외 삼십칠두나된다고한다

內臟싸움

평양부내수육상조합에서는 소 도야지에서나오는 내장은 내장소매인단들로하여 일반시장에내노왓는데 내장소매상측에서는엽마전부터 『최근 가축갑시폭등하여 수육상조합에서는 폭리를보면서 내장갑슨 조금도 내려주지안는다』고 내장갑을『뻐이코트』하고 오래동안 분쟁을계속하여 시민은 내장기근을 당하엿섯는데 쌍방의진정에의하여 부위생계에서 알선하여 내장한근에 십팔전(재래이십칠전)으로 원만해결하엿다

獸肉價引下

그동안 평양시내의 고기갑슨 오르고도올라 외만한집에서는기하지안코 『채식주의자』가름 살림을하여왓는데 최근 가축갑시 폭등한이유로 수육상조합에서는 우뷔일일부터 소고기백몸메(匁)에십전 도야지고기오전을 인하하엿다

暴風에漁船顚覆

漁夫一名의行方不明

宣川郡南面身彌島附近에서

【新義州】선천군남면동당동(宣川郡南面東塘洞)고원주(高元柱)외 두명은 지난이십팔일오전네시반쯤 가튼면 신미도(身彌島)부근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던중 폭풍우를 만나 배가전복되여 세명모두 표류중 때마침 부근을 지나가던 『전마선』에두명은구조되고 고원주는 행방불명이되여 방금사체를 수사중이다 그리고 피해액고는 이천오백원가량이라고한다

江陵郡邑面長會

來九、十、十一日에

【江陵】강릉군(江陵郡)읍 면장 급 어업조합이사 학교장회의(邑面長及漁組理事學校長會議)는 오는구일 십일 십일일 삼일간에 궁해 강릉군사무소이층에서 개최된다는바 그의일정은 다음과갓다한다

六月九日 邑 面長會議
同十日 漁組理事會議
同十一日 學校長會議(金組理事協議)

酌夫의奸計로 虛僞窃盜告發

【淳昌】자신이절도범행을하고서 도리여 자기의소송까지 절취를당하엿다고 허위고발을하여한동안 사회의이목을 소연케하다가 결국사실이판명되여 큰치장신세를지게된 괴이한 사실이잇다 지난오월이십삼일밤 전북순창읍내시장동오차관(全北淳昌邑內市場洞)에작부로잇는 전삼순(全三順)(二三)은 돌연자기소

犬皮代三百餘圓 青年團에寄贈

【咸南支社發】견피(犬皮)대금을 바든것을 청년단에기부—함주군주북면(州北面)들은 저난번 견피매각으로어든돈 삼백육십오원을 본래부터 보국(報國)할뜻

籠城血戰五年間! 弓盡矢折·落城의悲運

極東「白軍」最後의殘壘海參威防戰談

"양"氏의老眼엔沈痛한熱淚

露人의亡命村 HOBUHA 노비나의今昔譚 ③

…"케렌스키-"정부(政府)가"짜-"에 대신하든 순간까지도 크게 락심은안햇섯소 그러나 "케렌스키-"정부가 하로이틀 지나감에따라 그것은결국은"볼쇠비키-"의 압력아페는아모힘도업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는것을 알게되자 우리들은 극동방비를 굿세게각오하얏슴니다…』 하면서"양팝스키-"씨는 기자를향하야 눈알을굴려가며 흥분햇다 냉소해보앗다해가면서 몸서리 치는 혁명(革命)당시의 추억을말한다 때마침 창밧게는 부질업시 세우가 나리고잇서 노인의 옛이야기에 한층더 처량한 감각을 도다주고잇다.

"케렌스키-"정부도반년이채못되여 넘어지고"볼쇠비키-"가 정권을 부잡자 혁명혹발이후 팔개월만에서 백리아는 적군(赤軍)의짤밥굽아래 여지업시 유린당하고백군(白軍)의 최후의아성(牙城)인 해삼위도 각각으로위험에 빠지고 마럿스니 이때 백군은불과 사만명남즛하엿는대 적군은 해삼위포병만으로도 대군이 동북, 서의 삼방을 마제형(馬蹄形)으로 포위하고 마럿다 백군의 사수하는 해삼위는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마침내 함락의 비운에 빠지고 마랏스나 백군은 그러라고 해삼위포기를 결심한적은 업섯다 빼앗겻다 다시 탈환햇다 번복하기 세번이나 쟁탈전이 계속하얏섯다 이때 백군의 채원지는 암에 말한"양팝스키-"섬이다. 해군(海軍)만은 그백군의 장중에 잇섯기때문에 무기탄약(武器彈藥)은미국(米國)기타에서 이섬에 상륙하야 전선에 지체업시 공급하얏다.

×

이전쟁이 천구백십팔년으로부터 오년동안계속되얏스나 최후의순간까지 나의"양팝스키-장군"령이인 해삼위 이남의 지역에는조로도 침략당해본일이업섯다.

×

세계대전이 단락을 짓게되자『적색로서아』의 웅징을 부르짓고 렬국은서백리아에 출병(出兵)을 단행하얏다 일본 영국(英國)불란서(佛蘭西) 미국(米國)"체코스로바키아"등의 련합국(聯合國)의 간부대가 한거번에 모아드러 주둔하얏다. 그러나 이들이주둔한목적과 그들의행동은 매우일치되지못한점이 만헛스니 첫재 통제가 업고 대부분의 나라군대는 불국과의 련락이매우헌드러 더욱질서도업고 규률도서지안햇섯다고한다 가장잇고잇는힘은 일본군과 미국군인데 모두후치부지등철병을하고마럿다 서백리아 출병이 유명무실하얏든것은결국은 련합국측의군대사이에 련락이부족하고더구나 미국가튼 나라는말금출병이지 그리면에서는적군에게 환심을 사려고 무기를공급하야 측면으로는항상이들을조해왓고 영,불등각국도 역시대동소이하엿다.

×

서백리아출병이유명무실에도라간것을 분개하야 이처럼 흥분하는"양팝스키-"씨의 얼굴에는 몃번이나 근육이 치떨리는 표정이 나타난다 해삼위가 최후로 함락되기 까지 수명으로 지켜온해삼위는 이십이년시월인데 이때 맹위는 이최후의 전지활략을 위하야 무력을총동용하고 게다가 적화선전(赤化宣傳)으로 후방을 교란시키려고 가진수단을 다하얏섯다. 이때까지 해삼위정부의 수반(首班)『지드릭스』소장(少將)은 목전에 닥처오는 함락을 보면서도 결코 섬을 열러는포고나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야 국외로 피난가라는 선고를 나리지안햇스므로 탈출의 준비는생각지도안코…… 그러나 오년동안 찾와나온이지구에도 마침내 최후의 운명은 차저오고 말엇다『양팝스키-』섬에 주민의 눈물이 비쏘다지듯나림순간의 사만의 백군은 벌서 이미 용기조차 꺽겨지고 마랏다 남은것은 해삼위정부의 항복과 주민들의생명을 어떠케건저야 할까하는방법 즉 탈출방법만이남아잇슴뿐— 이순간은돌라운운명이차저오기를기다리는 듯이 무서운 침묵가운데몃칠을보내고잇섯다고하며 이야기를계속하는양코보스키씨의 얼굴에는 사이에 멸고잇섯다.

(사진은노비나의 絕勝所附近)

咸北特派員吳快一

過渡期朝鮮의反映 離婚訴訟이激增

五個月에八十四件突破

大邱法院集計

【慶北支社發】과도기조선사회의 실정을 충실히 반영한 리혼소송(離婚訴訟)사건의 통계는 우리들의 물명예한 수짜임에는 틀림업스나 우리로서 어수짜롭게 심히간과해버릴수는 도저히 업는일이다 대구지방법원에 제소된 금년일월이후의 리혼접수건수는확경 팔십사건이라는 경이적수자이다 이를월별로 본다면 사, 오양월이 가장만으며 그리혼이유로는 간통(姦通)학대(虐待)모욕(侮辱)등으로 그중에는 남편이 원고가된것도잇고 여자가원고로된것도잇는데 그중에는 방금 거리의 화제가 되여잇든 "칠천원의자료사건"이라는 배모(裵某)씨의 리혼사건도 끼여잇스며 대부분이 젊은남녀간의 사건으로 재판소의권고로 화해하여 다시원앙의쌍을 지우게된 것도불소하다고한다

早婚에有罪

별항과가티 이혼소송이 격증하는이유가 나변에잇는것인가를 관찰하여보는것은 뜻잇는 사람들의 의무일것이니 과연 백년해로를 맹세하고 평서동락을해 오그네들이 어이하여 세인주시의공판정에까지 밀폐하여야할 정의비밀을 폭로하지안코는 안되엿든가? 그이혼의 표면이유가전술한바와가티 혹은간통, 혹은학대, 혹은모욕등 민법팔백십삼조에 해당하는것이나 그이면에잠재되여잇는"참된리유"는남편이안해의 무지함을 이유로하여제소한것이 대부분 어라는바이는즉 삼십세대에잇는 조선청년이대개 가튼길을 밟바오게된하는사실로 그네들의 대부분은 조혼(早婚)이라는 봉건사상에희생이되엿다가 이조혼의 피해를각성하는동시 부부간의 교양수준이너무나 현저한 차이가잇스므로 이모순을 해결하기위하야 드디어 모든표면적 이유를 날조하여드디어이혼소송을 제기케되는것으로 이는과도기조선이아니면볼수업는 사실이라고한다

電車票僞造事件

平壤中心으로漸擴大

別黨三名도檢擧、行使額四千圓

【平安支社發】기보=전차표(電車票)를 위조하여 행사하든범인김대석(金大石)(三六)김대하(金大河)(二)의형제가 대동서에검거되여취조를진행한결과 전차승차권만도일천오백책 그금액이이천오백원에달하엿는데 이위조단은 평양을중심으로 그가족전부가 공범인것이 판명되여 그의친부김홍규(金洪圭)를 검거하려고 부내창전리(倉田里)김홍규의집을 형사대가 습격햇슬때에는 이유를 알고 발서 도망하야 종적을 감추엇든바 그후 온갓수단을 다하야 수색중이든 김홍규는 마츰내 대동서원에게 체포되어 취조를 밧고잇는데 그들은 위조기계를 사용하야 위조전차표를 제조하여 평양뿐아니라 경성 부산 등지에서도 행사하여왓다고하며 그행사액은 사천원에 달한다고하는데 대동서에서는 이밧게도 공범이잇슬것으로 보고 계속수사중이다

(寫眞上은 電車票僞造에使用한器具 下는 金大石兄弟 下左는 吳炳笛一派)

平壤有志의發起로 李鍾萬氏歡迎宴

三日夕、大同江上에서

【平南支社發】평양인사의 고대하여마지안튼 대동공전(大同工專)이 아니 전조선에서 속히개교하기를바라든 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專)가 칠월일일부터 개교하게되도록 인가되엿슴으로 설립자 이종만(李鍾萬)씨에게 그인가가 전달되엿스므로평양인사는 기쁨에넘치어 대동공전의 설립을 축하하기위하야 지난삼일 오후다섯시 평양유지사십여명이 평양시민을 대표하야 이종만(李鍾萬)씨와 세분을 대동강상에 초대하야 환영하엿다 때가실록이 옥어진 가절이므로 대동공전의 탄생을 축하하는의미로 대동강상에 배를띄워 대동공전설립자 이종만씨를 환영하기로 되엿섯는데 교육계의원로조만식(曺晩植)씨의 의미기픈 환영사와 주빈이종만씨의 답사가잇섯스며 이어 환영회를 마치고 헤어젓다

鐵綱配給統制 組合結成協議

【咸南支社發】함남도내 일백십여명의 철공업자(鐵工業者)들은 지난번부터 철강배급통제(鐵鋼配給統制)조합조직의 준비를 하고잇든바 이일오후 함남도산업장려관에서 각지방대표 십여명이 모여서 그창립준비에관한 최후적협의를하얏는데 불일 창립에 이를것이라고한다

木浦港貿易高

比前年同期激增

【木浦】목포항(木浦港)오월중무역액은 유백사십팔만구천삼십원으로 전년동기에비하야 이백삼십사만이천구십이원이 격증하엿다 수이출에잇서서는 사백삼십유만사천구백팔십이원(전년동기보다 이백삼십이만여원증가)이요 수이입에잇서서는 이백사십이만여원(전년동기보다 이만여원증가)으로써 약진적현상인데이를다시수이출입의 품별(品別)로보면 수출은만주북백삼십구원중에 만주소용면직물과 천진(天津)、만주소용 견해태(乾海苔)가 증가하엿고 수입은 청도전일대(靑島天日鹽)과 만주녹두(綠豆)의대량수입과 인도면(印度棉)십사만원이오천원등이요 이출품은 미곡이 격증한이외 면자유(棉子油)잡곡이 상당히활기를띄엿고 이입품은비료 포목 비단 인조면 파이바-, 소맥등이 증가하엿다

鎭南浦港擴張의 實現運動進一步

對支貿易飛躍의準備

【鎭南浦】지나사변후의 활발한무역거래로보아 가장입접한관계를가지고잇는 진남포항은 평안철도의개통과 평양철도완전전통등이 실현될과 동시에 대만무역의 증대가 현재보다 훨씬증가될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이어니와 현재의항만시설로는 도저히 그처리를 감당할수 업슴으로 평안남도 당국에서는 진남포항의 확장을 계획하고잇는데 이에대한 공사비 약삼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엿다고한다 그결과가크게기대된니고한다

근현재의항만상황을서면으로 총독부토목과장에게 제출하엿다한다 총독부당국에서도 지나의명확화에따라서 금진척으로 실현의필요를가지고잇는듯하다고 함으로 불만부민은 일치단결하여 실현운동에 매진하고 동시에 상공회의소에서는 일층매렬한 활동을개시하여 실현을 기하기로 되엿다고한다

治維法違反事件 八年懲役을言渡

三日、大邱地方法院에서

【慶北支社發】소화육년 삼월에 상해(上海)에건너가 상해동남의과대학(東南醫科大學)을 졸업한후 모사상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일방지나사변이 돌발하자 피난민(避難民)으로 가장하고 고향인대구에 잠입하엿다가 체포되엿든 김종기(金鍾基)(三〇)에대한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급외환죄(外患罪)에관한일심공판은 지난이십칠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경(大町)검사로부터 징역팔년의 구형을바고 그판결언도를기다려왓든바 지난삼일오후한시부터 대구지방법원제사호법정에서 주전(舟田)재판장 당임으로 개정하게되엿다 이날역시이사건의판결을보려고 몰려온방청객으로 법정은만원을이루엇스며 피고는 그동안옥중생활로 말미아마 다소창백한 얼굴에도 과거를회오한빗츨보이며 태연한태도로판결을기다리엿다 정각이되자 재판장으로 부터 피고에대하여 징역팔년에처한다는 판결이유를 상세히설명하엿는데 피고의 사상적전향을인정하는동시 당시적국과관계를 어든 용서할수업는것이며 범죄에 대한 외환죄에 관한 간접행동을한것은 외환에 대한 책임은 버서날수업는것이라는말을 순순히 타일너연재사상적전향을하고잇는피고에적지안흔감명을주엇다고한다

治安維持法違反 外患罪 八年懲役 被告 金鍾基

殉職警察、消組員 招魂祭를執行

三日大邱署構內서

【慶北支社發】경북도순직경찰직원(殉職警察職員)및 순직소방직원(殉職消防職員)의 초혼제는 서장회의의 최종일인 삼일오후세시 대구서(大邱署)구내에서엄숙히 집행하엿다 제장내에는 상동지사(上瀧知事)팔목경찰부장(八木警察部長)、각과장 영전대구서장(永田大邱署長)이하 각서장등이 참렬하엿는데 순직경찰직원은 순검(巡檢) 정병권(鄭炳權)외 삼십삼위이며 순직소방직원은 목촌영태랑(木村榮太郎)

大同工專入學願書

十六日까지接受

開校는七月一日부터

【平南支社發】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業專門學校) 개교를앞두고 말미암아 제일회생모집의 시행할 광산과 토목과 정비과의 대략은 다음과가티 사월말부터 원서를 점수중이다 기술자를 이끌고잇는 현하이만큼 응모자가 물밀듯할모양이다

出願期限 六月十六日까지
出願手續 入學願書、戶籍謄本、手札形寫眞、入學檢定料五圓
試驗科目 國語(講讀、作文)英語 數學(代數、幾何、三角)化學 身體檢査、口頭試問
試驗日割 六月十八日부터 六月二十二日까지
試驗場 平壤新陽里元崇實學校
願書交付及受付場所 平南道廳內 同校 假事務所

盈德地方爭議 三十餘件調停

治安維持法違反 外患罪 八年에處함 金鍾基

【盈德】경북영덕군(慶北盈德郡)에서는 쟁의는의연계속하야수백여건에달하든바근히 조정되고지나일일은 영덕(盈德)에서 삼일은 영해(寧海)에서 삼십여건쟁의사건을조정하여일단락을지엿다고한다

進行汽車와衝突 少年一名轢死

東海中部線에서

【慶北支社發】이일오후두시십오분경 영일군 달전면 류강동(迎日郡達田面柳江洞)오백십륙번지의 철도건널목 동해중부선 대구기점(東海中部線大邱起點)구만팔천사십오키로에서 영일군 달전면 류강동 오백이십사번지 정○○(一五)

버섯먹고中毒 老婆死傷

釜山府內谷町에서

【慶南支社發】부산부곡정(谷町)이정목 일백구십팔번지 리종락(李鍾洛)의모(母)김선녀(金仙女)(六〇)가 이일오후네시경에 꾸정(谷町)뒤산에서 캐여온 버섯(毒茸)을이웃에사는 김귀영(金貴英)모 리씨(李氏)(五〇)와 논아먹은것이 중독되여 생명이위독하므로 토성정(土城町)사정목파전의원(貝田醫院)원장이 왕진수당을하엿스나 김선녀는 오후열시쯤되여 사망하고 리씨는 근근생명만은 보존케되엿다

六月四日 五日 兩夜
李瑞求作
어머니의힘 三幕五場
劇團 豪華船特別大公演 料金 五十錢均一
青春座의뒤를니여東劇의壯擧名劇競演大會의푸-나-레로掉尾를裝飾할豪華船의熱演은括目할價値가充分합니다!

府民館
六月四日밤부터
李瑞求作
사나히사랑 三幕
劇團 青春座 全員熱演
上演劇本은名星嚴美花를出世시킨傑作으로萬人의紅涙를짜아내는人生의敎訓篇!李瑞求氏作『어머니의힘』입니다 오소서모히소서! 府民館으로府民館으로!
新綠보다도淸新한青春座가南鮮千里의遠征의功을세우고單京한野心과希望에불타는이熱演을보시라! 週間休演中이든金仙草金鮮英兩孃의元氣百倍出演도錦上添花의感이잇슴니다 上演脚本은李瑞求氏의苦心으로新傾向을보여주는異彩百點의大作입니다
東洋劇場

補血强壯
造血아웃호르몬
ブルトーゼ
부루도-제
各帝國大學病院常備藥
ブルトーゼ
アルゼンブルトーゼ
キナブルトーゼ
ヨードブルトーゼ
グアヤコールブルトーゼ
ネオブルトーゼ
冊子「活動の源泉」無代進呈
B1834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經濟朝鮮說

獨占이物價支配
重視안할수업는그壓力
物價高와그對策 (33)

以上重工業品、纖維工業品、食料品等의代表的商品等에 物資의需給關係의 側面으로부터 價格昻騰의 原因을 追求한結果 各商品部門마다 그需給과物價昻騰의關係에서도 結局은物資의不足이라는 共通한現象이物價昻騰의 主要原因이엇든것이究明되엇다

그러고 各商品部門의 이物資不足은 다만一時的需給關係에 基因한것이아니오 後進的인 軍工業生産力을 急速히昻進시키기爲하야 必然的으로 생긴것이엇든것은 旣述과가튼데 이에잇서 現在의物價昻騰이 容易치안흔 重要條件과特殊性을가지고잇다 그러나

戰時經濟 政策의遂行에當하야서는 其外에도 여러가지 要素가생기고 그것이旣述한 物價昻騰에拍車를 加하고잇는것도 事實인데 此等의原因이되는것에對하야

一、獨占價格
二、消費稅、物品特別稅、其他輸入禁止等
三、輸送能力의不圓滑、運賃昻騰
四、勞動賃銀의昻騰
五、代用工業其他自給自足策의遂行

等을 順次살펴보기로하자。

◇

價格의形成에當하야 供給者間과 需要者間의 自由競爭에依하야 決定되는것을 競爭價格이라하고 獨占價格이라는것은 이에對應되는것으로써 當該商品의供給이 何者에依하야獨占되고 從하야 그價格形成에當하야서는

自由競爭 이排除되며 獨占者의意思에依하야 決定된다。그獨占의方法에잇서 鐵道事業、專賣事業과가티 法律乃至權力에依하야行하는것、特許物等과가티 自然的原因에依하야 行하는것等이 잇는데 最近問題가되여잇는것은 『칼텔』『트러스트』等에依한 獨占價格의形成이다。

昭和六年 政府가 重要産業統制法에依하야 『칼텔』助長策을取한以來 『칼텔』의形成이 續續되어 이미重要産業에는 거의『칼텔』이形成되어잇는現狀인데 戰時經濟遂行은 資本集中과同時에 어느傾向에 拍車를 加하는바잇고 特히商工當局은 오히려 『칼텔』의機能에依하야 戰時經濟의 圓滑한 遂行을企圖하고잇는 今日 『트러스트』及『칼텔』과

獨占價格 의關係는 注目할만한問題이다

昭和六年以來의 物價의上昇이 通貨『인플레』와 輸出『인플레』의二大支柱上에서잇든것은 世間이 周知하는 바이며 『칼텔』助長策이 恐慌對策으로되어 『칼텔』價格의形成이 物價上昇의 重要한役割을 하고 잇든것도 否認할수업는 事實이다 『칼텔』의大部分은 其協定項目으로써 生産協定、販賣協定을 包含하고잇다 『칼텔』의 結成이 脆弱하야 相當有力한 『아웃사이다』가 存在할때는 『아웃사이다!』에게 威脅될때는 別問題이지만 『아웃사이더』가 排除되던지 乃至其勢力이 微弱하야 『칼텔』의 結成이 强固한 境遇에는 『칼텔』의

協定內容 은價格의維持引上이되어 이것으로써市場에 對하야 支配的힘으로써 臨할수잇는것이다。이러한境遇에는 協定價格은 加盟者中의 最高生産費를基準으로 決定될뿐아니라 其協定價格은 獨占價格의 性質을 띄며여 價格引上에依한超過利潤의 獲得도 또한可能하게된다。『트러스트』가 市場에對하야 支配力을 가지게되면 이關係는 一層 더나아가게되는것이다。

政府는 이에對하야 重要産業統制法의 第二條의 强化로써 此等의『트러스트』『칼텔』의 販賣等의 價格決定에 臨하야 其決定價格이獨占的性質을 띄지 안토록取締에當하고잇다。

그러나 一方此等의 『트러스트』『칼텔』이 結成되어잇는

商品部門 의價格의動向을 보면 十一年一月에 比하야 十三年二月의 價格은重油四割八分、揮發油二割五分、麥酒一割一分、印刷紙二割四分、纖維紙三割三分等 모두相當한 價格騰貴를示하고잇고 또硫安가튼것은 本年은 四割五分乃至五割의 高度의限度을 實施하면서도 價格은去益上昇되는中인 事實이 存在하고잇다。此等에對한 統制法의取締는 砂糖、麥酒、鐵鋼、紙、其他에 對하야 統制法을發動하엿스나 第二條의公益規定의 發動은舊法時代에『세멘트』에 發하엿슬뿐이어서 取締上缺陷이 잇는것가티 생각되며 特히 當局에서此等『트러스트』『칼텔』의 決定價格에 對하야 正當한 價格이라고도할만한것을 提出할 準備조차업는것은

主要缺陷 이라고보인다。最近麥酒共販에서는 麥酒稅의一石當五圓引上에 際하야 材料高도 合해서 商工省에對하야 麥酒의引上申請을 하엿스나 商工省이 最初는 强硬한態度이엇슴에도 不拘코 結局麥酒共販의 要求에 가깝게決定된 經過等은 上記

當局의 價格決定에對한統制와 同時에 『칼텔』『트러스트』等의 壓力이 强함을 말하는것도 充分히 窺察된다。

現下의戰時經濟에잇서는 價格統制를 行하려하고잇는 公定價格의 設定等에依한 價格統制의 最高價格을 行하려하고잇스나 此際의 危安의 價格公定의實施에 依한 破綻을 招來하는 當하야 當時의 時價昻騰을 理由로 公定價格을 高位에 두고 設定한터인데 今後의 價格統制遂行에 當하야 『트러스트』『칼텔』의 決定價格에 갈려서 오히려物價高를 法的으로 保證할수업는것이다

專賣事業 을드럿스나 法律的獨占의 例로써 專賣의 事業價格과 가튼것은獨占價格의 適當한 것으로 最近各品에 亘하야 大幅의 引上이 斷行되고잇다 專賣品으로보면 好되어엇는 것의 必需品과가튼 意味에서 相價格引上은 重要한 物價騰貴의 하나가 된것이다。

金組後退·産組改革
農會進出이原則
農村三機關整備今秋엔實現
農林局의原案成案!

農村三團體의 調整問題에對하야 農林局에서는 느저도 今秋의 穀類出廻時期까지에는 具體化할意向으로 原案을研究中이든바 局으로서의 方針이決定되엇슴으로 近間 殖産、財務兩局과 折衝을 開始할터이라한다 渡東中인 穗積殖産局長의 歸任을기대려 交涉할터인데 農林局의原案은 嚴秘에附하나 金組의後退와 農會의進出、産業組合의改革이原則으로될것은 最近農會의 機構擴充論이行하는 事實과 農林局의 傳統的主張으로보고 다만 農村機構整備論等으로보아서 想像키不難하고 그結果가 注目된다

渡東 齋藤幹事長은 本日發渡東하리라한다

仁川穀協座談會

【仁川】仁川穀物協會에서는 三日午後四時부터 穀物協會樓上에서 座談會를열고 懶商協議한바 잇섯는데 運賃會議에 出席할人員은 아직未詳이나 丸仁穀物協會長加藤平太郎氏와 同協會島越理事及關係當局으로부터 參加할터이라한다

麥作減收豫想
比前年二百五十二萬餘石減
五個年平均卅五萬五千石增
千二百十五萬八千石

農林局發表＝昭和十三年度麥作狀況을 調査하면 昨秋南朝鮮地方에서 播種期에 降雨가 繼續되어 播種이 遲延된때문에 相當한 被害가잇고 伸長期에 至하야 全朝鮮을 通하야 旱害를蒙하엿스며 五月初旬의 降雨에依하야 多少緩和되엇다지만 前年에 比하야 二百五十二萬六千石(一割七分二厘)의 減收豫想으로서 五個年平均에 對하야서는 三十五萬五千石(三分)의 增收가 豫想된다。

即 六月一日現在의 收穫豫想高는 大麥七百七十萬六千四百八十二石 裸麥二百四萬八千八百六十一石 小麥二百三十二萬二千二百五十六石 라이麥七萬六千三百二十二石 合計千二百十五萬二千八百二十一石으로서 前年實收高에 比하야 大麥一百十八萬八千八百四十七石(一割一分二厘)裸麥四十四萬九千七百二十二石(一割六分二厘)라이麥五千六百九十六石(六分九厘)의 減收이며 小麥은 一萬七千九百八十六石(九厘)의增收이다

이것을 前五個年平均에 比하면 大麥四十八萬一千五百六十九石(五分九厘)減 小麥二十二萬五千六十二石(一割二分二厘)裸麥五十八萬八千二百五十二石(三割三分九厘)라이麥二萬三千六百七十六石(四割五分)의 增으로 合計三十五萬五千四百二十一石(三分)의 增收이다

米運賃協議會
朝鮮서大擧出席

朝鮮米輸送船運賃은 七月末로써 現行契約滿了하므로 東京廻米問屋主催下에 來十五、十六兩日箱根에서 內地荷主 朝鮮米穀協會 船主側三社의 各代表가出席 八月以降의 契約에對하야協議할터인데 船腹不足의 現狀으로보아 運賃高를 豫想하야 注目된다 總督府에서는 下飯坂米穀課長 吉池技師 渡邊技手가列席할터이요 朝鮮荷主側에서는齋藤幹事長以下二十五名이 大擧出席할터이요 橫山理事는 四日發

鐵材配給
鐵鑛協議會

總督府鑛山課에서는 四日午後一時부터 第二會議室에서 鐵鑛協議會(鐵鑛、硫化鐵鑛、螢石、重晶石)를開催하고 鐵鋼材配給에 對하야 協議하얏는데 九日에는無煙炭協議會를 開催하리라한다

輸出促進策
棉花輸入緩和
—池田商相言明—

【東京電話同盟】池田商相은 當面의 商工行政에 關하야 三日如左히 말하엿는데 特히 輸出振興의 一策으로써 棉花輸入促進의 具體的方法에 着手하엿음을 言明한것이 注目된다

▲輸出振興＝輸出振興의方法으로써 先般民間五團體로부터 建議가잇섯는데 其中에는 어떠한實行할것도잇서 商工省으로서는 그中으로부터 實行性이잇는것을 選擇하야 實行할생각이다 지금은 무엇보다도實行할때라고 생각하고잇다 輸出促進의 誘導策으로 原料의 輸入制限을 緩和하는것이 必要하다 爲先 棉花에 關하야 그具體化를 各其事務當局에 立案하라고 命하엿다 輸入한 棉花가 內地向製品에轉用되어서는 困難하므로 이防止策에 關해서는 特히 愼重을期하지안흐면안된다 고무工業者로부터 고무原料難으로 陳情이잇섯스나 此際에多少의 犧牲은不得已하다고생각한다

▲商工省機構改革＝省內의 局課는 戰時財政經濟政策遂行에 當하야 重複關聯한 多元的統制는 弊가잇다 이것을 一元化하기爲한 機構改革에 關해서는 아직생각지안코잇다 다만 物資調整局의 設立으로 一元的統制는 期할수잇슬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半休·休日도
預金事務取扱
京城組銀도協調

全國貯蓄獎勵强調週間(二十日부터二十六日)에 協調하야 東西社員銀行에서도 二十五日의土曜午後、二十六日의 休日도預金事務를 取扱키로 決定하엿는데 京城組銀에서도 總督府의 意向을쏘고 木曜會에서 同週間中의半休·休日의 預金取扱을 行하리라한다

金融樂觀人氣
公債暴騰!
二·二六事件以來高價

【東京電話同盟】新甫岸로依然無活氣閑散이더니 日銀所有短期證券의 賣行良好가傳하자 金融樂觀人氣로 甲號五分、二回五分은 十五錢高、二回四分十五錢高이엇고 五分利債는 當分買替不安이업서利廻關係로買進되엇는데 이는二·二六事件以來의 高價이다

▲甲號四分一〇三、五〇 ▲一回四分一〇三、四五 ▲二回四分一〇二、四五 ▲十八年物一〇二、九〇〇 ▲十三年物九八、五五 ▲佛貨四分一九八、〇〇 ▲米五分半三六〇、二〇

東拓五百萬圓
社債發行

東拓은 今年에入하야 第一回千五百萬圓의 社債를發行하고 上期資金計劃에 充하얏는데 六月一日에 다시 滿保資金引受로 如左히 五百萬圓의 社債를 發行하게되엿다

一、發行額 五百萬圓
一、利率 四分三厘
三、償還期限 二個年据置 九個年年賦
四、引受 簡易保險

金鑄潰禁止緩和
大藏省令改正要領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三日外國爲替管理委員會의 決定事項에 基하야 金貨幣의 鑄潰에 關한 絕對的禁止를 緩和하고 大藏大臣의 許可를受한境遇에는이것을 할수잇게하얏슴으로 外國爲替管理法에 基한大藏省令을改正하고 四日부터 公布施行키로 되엇다 右改正省令은 우선左記에依하야 運用할方針이다

一、鑄潰에 依하야 得한地金을 政府에 賣却할境遇에 限하야 許可를與할方針인것
二、鑄潰는原則으로서 造幣局에 對하야서만 認할方針인것
三、金貨幣의 所有者는 造幣局에鑄潰를 委託하면 許可를受할것을 不要
三、日本銀行本店及支店에서 造幣局에對한 鑄潰委託의 手續을할수잇슴(旬日中에開始할豫定)

各市場打診

鍾紡中心의波瀾

株式

昨週 近衛內閣改造에依한 政局安定과 藏相更迭을 好感코 諸株도 今後의 政策具體化에伴하는 革新政策遂行에對한 念慮에加하야 國府의 昆明移轉도거의 確實視되어 戰局의 急速한 進展에不拘코 長期戰은 不可避일것으로보이고 佛國의對支援助와 廣東爆擊에對한 物議等으로 外交關係는 다시 어지러운 一面을나타내게되어 諸株의伸力이 阻止된後 鍾紡三倍許可說로 再次硬化模樣이되엇스나 그確實性이 問題되어 再落하엿다가 週末再大鍾紡中心의 反撥을보여 商勢는 鍾紡思惑을中心으로 一高一低가되엇는데 이러한中에도依然 買警戒는 嚴東하므로 市勢의 急速한 恢復은 期待難일지 모르나 放心도 또한 禁物이니 現時의鍾株不振과 株過剩傾向도 金融情勢의 好轉에依한緩慢한金融으로 그下値를 阻止할것으로豫想되는터이며 惡材料도 거의賣盡하엿스며 六個月동안의 下勢로繼續한 低落末期의現象은 到處에서 엿볼수잇는것이니 天災地折的大惡材가 出現안는다면 올라도 그리치안는限 崩落도 또한 疑問이라 一起一伏의 下値鍛鍊을 거듭한今後의 動向은新動機와함께 자못注目을 要할바일것이다

期米

一押後賣込警戒로
反撥裡商勢硬化

好順無敵으로昨月末은 順氣賣의優勢로 漸落步調가되고 新甫도 上放後 約三十丁의 奔落을 先하야 商勢惡化의 變化는 아직遼遠한天災期를압두고 全然豫測을 不許하는바이며 米穀事情은 비록需給에 何等不安이업는터이나 長期戰不可避와함께 消費增大의 傾向은益益顯著할것이오 物價抑制聲도氣分的으로는 米價에 影響을 與할것가트나 一般物價指數보담低位에잇는 米價의 獨步的下落은 업슬것이오 內地의米穀對策憂慮도不無하야 戰時食糧의 第一位的價値를가진 米에對한關心은漸次그度를 加하게된것等으로해서 突込은 警戒되여 다시反撥狀이 되고 週末堅强步調로 越週되엇는데 今後端境期를압둔 市勢이니만큼 容易히低落을 不許할것이나 도가트나 그러큰高價도 期待難이니 今年農形透視까지는 一進一退의 高價保合을 거듭하다가

生絲

大幅變動期待難

閑散裡에 底强味를不失하야 그前途는 興味로써보엿스나 人氣沈迷는一層深化하야 材料도업서 新甫도平凡하엿고 그後도 千篇一律的保合이 繼續할뿐인데 當面의 需給不安이업고 現物賣行은 依然細調로우므로 下押念慮도업서 大體로下値鍛鍊의 繼續으로보아도 조흘것이나 當限落後의取組는 五萬俵臺頭이 되어 仕手戰의妙味도업고 環境은不透明이오 新繭은 漸漲傾向이며 時局의重壓은 依然하야 目前大幅變動은 期待할수업스나 反面實需인繭의低調와 米國景氣의低調와함께 賣込後가아니면 底入은至難하리란觀測도업는바아니다

人絹

好材도어미出盡
統制念慮로反落

昨月末 一氣二十圓高의 大市勢展開하야 九十圓大臺에 肉迫하엿스나 月中의輸出은 依然不良한것이多少의嫌氣가되고 利喰賣物도 出現하게되엇스며 大下長이된 組關係와함께 市勢는 反彈傾向으로轉하야 一押을告하게되엇다 가 北中支關稅 引下實現等으로 大局的으로 悲觀할 必要가업다고보아 所屬品이만코 低價物을

綿絲

二百圓大關門割

六月의 綿絲生産은 다시一割 減産을行하기로

三A續落

米棉八十錢高 印棉五錢高의材料로 三品은 一圓五十錢高이나 市中은 依然先物及現物崩落으로 買人업는 全혀閑散 市勢도名目뿐이엇는데 三A二百六十五圓으로 比前日五圓續落이며 其他五圓가량떠러졋다

今日의市勢(四日)

株式 突込後急返

前場波瀾 昨日의鍾紡後今朝外電低調와함께 人氣不安하야 各地의低寄와 東新五低 鍾紡一四七低로 反騰寄付한後 漸漲裡에 東新은百四十五圓臺로 低下하고 鍾紡도二百四十七圓臺에低落하야 商勢無氣力狀을보인것이 忽然鍾紡增資有望說과 綿花輸入緩和言明으로 鍾紡은二百五十三圓臺를 恢復하고 東新도百五十八圓臺로 反發하야好勢된後 週末에 高價處分物도잇서少弛裡에 推移되다가 東新百四十八圓四、鍾紡二百五十一圓六에大引되고 後場은土曜例休이엇다

鍾紡增資有望說과 輸入緩和好感

再昨日 鍾紡增資問題를 圍繞코 意外의 波瀾을보이고 昨日의反落으로 鍾紡增資도 希望薄인것가티보여 小口의嫌氣投와함께 忽然鍾紡中心의 反撥이 再現되어 週末에 다시 一場波瀾을그렷는데 어제東阪情報에依하면 今朝의 鍾紡은 左의二材料에依한것이라고한다

一、鍾紡增資有望說—鍾紡增資에對해서는 池田商相도 이에相當한 諒解를가저 그新資金에 對한 希望을가저도 조흘것이라는論이傳하는同時에 莫若二倍增資一割八分配가된다면 一部의探算上餘地가잇다는 加하야 舊株一株에對한 新株의割當이 功勞株의意味로 一株를加한二株가 되지안흘가 잇서 이權利를目標로한 漸次擴張하여가 잇든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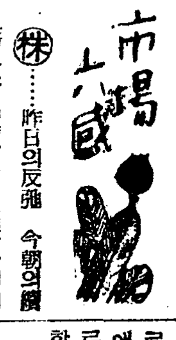
二、藏相은 輸出振興의에 綿花輸入緩和를 言明하엿는데 [illegible]

上放의機緣?

再昨日의 買煽이 失敗에歸하고 昨日에 뒤이은 今朝의突込으로 人氣는 다시賣偏하려는傾向을보엿스나 [illegible] 一大快消息이 아닐수업다는 것이다

[illegible] 日藏相의 統制緩和는 財界의歡迎하야 마지안는바어니 어떠鍾紡增資許可發表라도된다면 一氣上放의機緣이 되지안흘가

市場人感



期米 漸騰裡 强調

前場昻進 今朝阪地先限三十五圓〇四錢으로 五丁高를 採하고 當은一圓九十錢인 五丁高 中은二圓十九錢인 二丁高로 先限은 三十二圓二十錢인 一丁高로 寄付한後 阪地稍稍高調로 [illegible] 結局阪比十六錢을보고 四十三錢에 止擧하다

當中은地場賣

當地先限은 擾倒되는 日後場으로 아직 仕手關係를 엿볼수업스나 當中은 地場有力筋이 賣成을 하고잇다 그取組의內容을 보면 當限은 八萬四千 上短下長으로 賣方으로는 金太의 二萬餘石을 筆頭로 [illegible] 買方으로는 丸福의 一萬餘石과 丸ウ의七千三百石을 首位로 丸玉及丸マ의 買物이 蟠居하고잇다 中限은十萬四의 上短下長으로 賣方金太店의 四萬九千餘石이란 實로 有의 大取組로 [illegible] 買方은 金メ의 一萬八千二百石과 丸福의九千三百石의 相當한 威勢를보이고잇스며 先限亦上短下長으로 賣方六店 買方七店으로 金太의一萬七千餘石 [illegible]

正米 人氣硬化 强含

京城强保

中間端境進出로 奧地의强硬態度와 相俟하야 目前蓬萊의 進出과 物價統制强化의二大軟材를 물리치고 淸算의 上進으로 市中人氣一段 硬化하야 低價에는 不實의堅强한 步調로賣買는 必需方面의 小口物뿐이오 移出側도 內地入注待로一息狀態라 市勢도 前價同樣의唱價어나 人氣强硬하야 保合이엿다 [illegible]

仁川强含

産地의頑强으로 賣物薄이인때에 定期의回復을보고 唱價도 一段高이나 依然買方의 冷靜으로 意外伸悩되여 昨日보다 强合이잇스나賣買薄이엿다 [illegible]

釜山續硬

奧地品薄으로 [illegible]

木浦保合

産地는 얼마큼 [illegible]

群山續落

奧地는 品薄을 [illegible]

大邱昻進

新規賣物募集難으로 [illegible]

米移出餘力과 今後米情一考

지난五月中 朝鮮米의內地移出은百十萬一千六百九十五石의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今日財界(四日)

[illegible]

海外經濟(三日)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銀行券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銀價

[illegible]

正米·正租

[illegible]

雜穀

[illegible]

綿絲布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京城物價(四日)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期米

[illegible]

綿絲 · 棉花 · 人絹 · 生絲 · 砂糖

[illegible]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益 京城 金益證券 益康

一日ノ御淸遊ハ銃後ノ保健ニ
永登浦
法德溫泉ホテルへ
七月開業
電話永 三四五番 家族湯ノ設備アリ
案內所 光⑨2858番
法德溫泉株式會社經營